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나의 진리로 살리라: 개인화된 신앙 시대의 복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개인의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영적인 주제를 다루는 대화를 어쩌다 들을 때면 "나한테는/내 생각에는(For me)"이라는 두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 두 단어는 대화의 진실과 거짓에 관한 주장으로 바뀔 때는 곧장 등장한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게 옳은 거 같아서 말이야." "내 경험에 비춰볼 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이야." 이 두 단어는 말하는 내용을 개인화시키고 상대화시킨다. 어떤 문제를 개인화하고 상대화하는 게 반드시 잘못은 아니다. 회의실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갈지 따위의 질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말하는 것은 주관적 의견의 공유를 의미한다.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되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대화가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주장, 또는 복음의 진리로 옮겨갈 때 "나한테는, 내 생각에는"을 덧붙인다면 문제가 된다. 진리와 거짓, 정통과 이단, 죄와 의의 영역에 관해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에 참된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진짜를 말하고 있다.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방식으로 나오는 이 두 단어는 진리라는 주장을 약화한다. 진리 여부의 문제를 단지 사적 믿음의 문제로 만든다.



우리가 복음을 나의 진리로 바꿀 때 복음은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암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는 이런 식의 사고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고 또 그것이 서구 기독교 선교에 어떤 도전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나: 계몽주의의 영향

우리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보려면 계몽주의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계몽주의라는 철학적 전통은 인간의 이성을 역사의 정점으로 본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는 수단으로 과학과 기술의 구현을 꼽는다. 자주 인용되는 다음 구절에서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계몽주의 프

로젝트를 정의한다. 계몽은 인간이 스스로 부과한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성숙 상태 말이다. ... 스스로 알려고 시도하라! 그러므로 "자신의 이해력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가 계몽의 모토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류의 문제는 의존적 무지, 즉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이해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의 해결책은 독립적인 사고이다. 그 점에 주목하자. 계몽주의 사고의 세 가지 측면이 우리 사회에 끼친 심오한 영향이 무엇인지, 나아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자.

1. 인간 이성이 보편적 도덕

의 기초로서 계시를 대체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모색한 것은 개인이 현 세계 너머, 초월적 현실에 의존하지 않는 채 도덕적 삶을 선택하고 장려하는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계시와 별개로 이성에 기초해서 도덕적 사회를 건설하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이 문명 전반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1948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은 사실상 계몽주의 사상의 결실이다. 인권의 기초로서 인류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선언한 서문과 조항마다 모든 문명에 대한 규범으로 제시된 도덕적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전은 하나님 또는 더 높은 차원의 힘에 호소하지 않는다. 이는 계몽주의 사상의 훌륭한 사례이다.

(3면으로 계속)



제10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우측아래 원안은 개회사와 개회선언을 하고 있는 고석희 KWMC상임의장

### 제10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성황리에 열려

"한국교회, 첫 사랑 회복해야...본 대회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돌아가길"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상임의장 고석희 목사, 대표회장 이승중 목사,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가 주최한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예수, 구원의 그 이름!(행 4:12)'이라는 주제로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고석희 목사는 "제10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에 500여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며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전파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던져 분골쇄신하는 2만9천여명의 고귀한 선교사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준 선교사들과 MK들께 하나님 아

버지의 한량없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중 선교사 사회로 8일(월) 오후 2시30분에 열린 개회예배는 고석희 목사가 개회사 및 개회선언, MK연합찬양팀 찬양인도, 이상진 장로(GBS시애틀) 기도, 안주 판타 선교사(네팔) 특송으로 이어졌다. 조용중 선교사가 성경봉독 했으며 이승중 목사(대표회장)가 '처음사랑의 회복(계 2:4-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승중 목사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교회이다. (9면으로 계속)"



시론 민경엽 목사



푸른초장 정승환 목사



교회선교의 선순환 조용중 선교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선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D.COM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 목회 코칭 온라인 세미나

오늘날 목회에 필요한 목회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목회 코칭의 적용 사례 및 워크숍

### 1차 세미나: 2024. 7. 19 (금)

3:00 - 4:30 PM 미서부시간

### 2차 세미나: 2024. 7. 26 (금)

3:00 - 4:30 PM 미서부시간

### 1차 세미나

목회 커뮤니케이션 이해  
효과적인 코칭대화법 적용

### 2차 세미나

목회 코칭의 적용사례 및 워크숍  
강점 코칭, 코칭 리더십 활용

#### 강사 소개

윤재병 목사 | 월드미션대학교 겸임교수  
더사랑교회 담임목사, 전) 이랜드그룹 사목,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코치, 국제PCC코치, KPC전문코치, 미국갤럽강점인증코치, 온누리교회, 가정교회사역원 등 다수의 목회자 목회 코칭

#### 신청 안내

\*신청 등록: QR코드를 통해 신청  
\*참가비: 무료

강의 신청하기

주관: 월드미션대학교 글로벌리더십 코칭학과 | StoryOn Coaching Center



시론

“한 줌 재 인생!”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 하던가? 여우도 죽을 때 자기의 굴을 향해 머리를 둔다. 이 말은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기의 근본을 생각하게 된다는 뜻이다. 젊을 때는 전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던 사람이라도 죽을 때가 가까우면 묻는 질문이 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가?

삼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으킨 이병철 회장도 말년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1987년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어떤 천주교 신부에게 24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그 질문들이 꽤나 깊이가 있는 것들이어서 그의 사후에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 나름의 답을 쓴 것이 책들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 회장이 질문한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종교란 무엇이고,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인간이 죽은 후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영혼이란 무엇인가?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올 것인가? 아마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던 이 회장도 시사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인생살이의 허망함을 느꼈던 것 같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에 목말랐던 것 같다. 사실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나 목마르다.

구약 전도서는 해 아래서 모든 인생의 본질은 허무라고 꿰뚫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게 인생이라는 것이다. 1926년 8월 4일 새벽 4시경 두 남자가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가는 관부 연락선에서 현해탄에 몸을 던졌다. 남자는 연극인 유부남 김우진, 여자는 조선 최고의 연예인,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로 명성을 떨쳤던 윤심덕이었다. 당시 윤심덕의 인기는 여왕의 위세라고 할 정도로 대단하였다. 그런 그가 삶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가족들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와 스캔들에 휩싸여 방황하다가 일본에 건너가 연인 김우진을 만나 조선에 돌아오다가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윤심덕이 죽기 얼마 전에 직접 작사하여 공전의 히트를 친 곡이 (사의 찬미)이다. 원래 헝가리의 이바노브비치가 작곡한 <다뉴브 강의 잔물결>을 그녀가 번안하여 발표하여 더 유명해진 곡인데 놀랍게도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1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에나/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갈 위에 춤추는 자로다 //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앓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엔 모두 다 없도다 // (후렴) 눈물로 된 이 세상아/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이 노래는 인생의 허무를 절절히 지적한다. 우리는 모두 허영에 빠져 스스로 속일 뿐이다. 삶에 열중하느라 가련하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갈 위의 춤처럼 위태하다. 결국 행복 찾는 모든 인생들이 찾게 되는 것은 허무. 가사가 마치 이 여기저기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듯하여 더욱 애잔하다. 윤심덕이 삶의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삶이 평탄대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은 허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방권이 아무리 길어도, 외모가 아무리 탁월해도,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해 아래 사는 인생의 그 끝은 허무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황망히 한국으로 달려 나갔다. 발인 날 화장터에 가서 두 시간 만에 한 줌 재로 변하여 나온 어머니의 유골을 선산에 묻으며 해 아래서 우리는 “한 줌 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내내 떠나지 않았다. 해 위에, 영원의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인생도 그 본질은 허무일 뿐이다. minkyungyob@gmail.com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C. S. 루이스를 알린 사람 킬비를 통해 복음주의에 세계에 남겨진 유산

1935년 서른세 살 클라이드 S. 킬비 Clyde S. Kilby가 영어 조교수이자 남자 학생 사감으로 휘튼 대학 교수진에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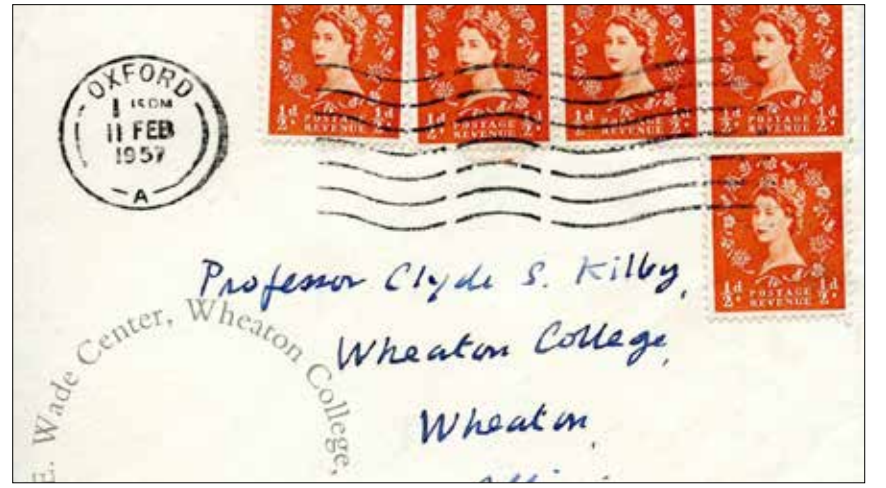
1943년에 킬비는 C. S. 루이스가 출판한 The Case for Christianity라는 제목의 신간을 읽었고, 이 책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이 책은 루이스가 BBC에서 했던 두 편의 방송 강연인데, 나중에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의 처음 두 섹션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나는 그 책을 단숨에 읽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심오한 무엇이 내 정신과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킬비는 마치 ‘바닥이 없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고, 그리고 그는 ‘루이스의 표현에 담긴 관찰의 깊이와 신선함, 그리고 표현의 영속성’에 단숨에 매료되었다.

킬비는 루이스의 책이 출간되는 대로 빠지지 않고 읽어 나갔다. 그로부터 거의 십 년이 지난 1952년 12월, 휘튼 대학 영어과 학과장이 된 킬비가 루이스에게 1953년 여름에 영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묻는 편지를 썼다. 두 사람은 옥스퍼드 막달렌 칼리지에 있는 루이스의 사무실에서 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16세기 문학, 예술, 르네상스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킬비는 그날의 만남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에게는 모든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즐거움으로 만드는 좋은 유머와 진실성이 있다.”

킬비,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루이스를 소개하다

루이스 작품 집행인 literary executor 월터 후퍼 Walter Hooper의 회상이다. “그날의 만남으로 루이스에 대한 킬비의 존경심은 확고해졌다. 그는 미국에서 루이스 최고의 팬이자 옹호자가 되었다. 루이스에 대한 그의 판단은 무척 건전하고 타당했기에, 킬비를 ‘루이스 연구과의 학과장’ ‘루이스를 사랑하는 미국인의 대부’로 부르는 건 당연하다. 킬비가 단지 루이스를 미국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에게 소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역할을 한 것은 자명하다.”

그날의 만남이 두 사람의 유일한 만남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두 사람은 1962년까지 십 년 동안 서신을 주고받았다. (루이스는 65세 생일을 일주일 앞둔 1963년 11월에 사망했다.)



1965년 킬비는 휘튼에 Marion E. Wade Center를 설립했다. 여기에 대한 그의 구상은 루이스와 잉클링즈 Inklings(특히 Owen Barfield, Charles Williams, Dorothy L. Sayers)의 저술과 관련된 보관소이자 연구 센터로 만드는 것이었다.

1966년 여름, 킬비는 몇 번 서신을 주고받은 적 있는 J. R. R. 톨킨(당시 74세)을 만나기 위해 한 번 더 옥스퍼드로 가는 길이었다. 그 여행에서 그는 루이스의 유일한 형제인 워렌 해밀턴 루이스 Warren Hamilton Lewis 소령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워렌이 죽으면 자신이 루이스의 편지, 원고 및 개인적인 기록을 받을 수 있을지를 타진했다. 워렌은 기꺼이 동의했고, 이 자료는 웨이드 센터 루이스 컬렉션의 기초가 되었다. (워렌 루이스는 1973년에 사망했다.) 마크 놀의 지적이다. “영국 작가들의 작품을 홍보하려는 킬비의 노력은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미국 복음주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킬비의 노력 덕분에 루이스는 근본주의자와 복음주의자,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미국인 전체에게까지 널리 알려지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루이스에 관한 킬비의 작품

킬비는 루이스의 작품을 진지한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미국인 중 한 명이었다.

• 루이스가 죽은 다음 해인 1964년에 킬비는 루이스 사상에 대한 최초의 비판적 연구 중 하나인 The Christian World of C. S. Lewis를 출판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초기 루이스 소개에는 1944년 Jesuit America 잡지에

실린 Charles Brady의 두 편의 에세이, 그리고 Chad Walsh가 1946년 에 쓴 기사 “C. S. 루이스: 회의론자를 위한 사도 C. S. Lewis: Apostle to the Skeptics”가 있다. 이 글은 1949년에 같은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 1967년에 킬비는 1950년부터 1963년까지 루이스가 Mary Shelburne이라는 여성과 주고받은 서신을 담은 Letters to an American Lady를 수집하고 편집했다.

• 1969년에 킬비는 루이스의 저작을 주제별로 정리한 선집, A Mind Awake를 편집했다.

• 1973년 킬비는 보충 캡션과 설명이 포함된 그림책 C. S. Lewis: Images of His World를 공동 집필했다.

• 1970년대 후반에 킬비는 Images of Salvation in the Fiction of C. S. Lewis를 썼다.

• 1983년에 출판된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워렌 루이스의 일기를 공동 편집한 것이었다.

• 최근에 Wade Center는 A Well of Wonder: C. S. Lewis, J.R.R. Tolkien, and the Inklings라는 제목으로 킬비의 에세이 모음집을 그의 사후에 출간했다.

킬비의 영향을 받은 두 명의 학생

1960년대 킬비의 학생 중에는 문학을 전공한 마크 놀과 존 파이퍼가 있었다. 놀은 지금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역사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파이퍼는 가장 잘 알려진 목회자이자 신학자 중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은 휘튼 마지막 해에 킬비가 진행하는 필수 코스를 같이 들었다. (1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기독교 청년 사진공모전
주제: 나의 십자가
자격: 기독교인, 미혼 한국인
등록: cksingles.org
마감: 2024년 9월 30일
제출 수수료: \$10
심사: 뉴욕한인회관 전시예정
문의: H.Lee 516-398-8289 Chris Cho 646-369-7124
후원: 뉴욕지구한인교회 협의회, 뉴욕한인회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미국의 진정한 독립은 언제쯤?

1776년 7월 4일에 13개 주의 미 대륙의 식민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미국 독립선언문'을 선포했다. 하지만 독립선언서 한 장 공포했다고 독립이 찾아오지 않았다. 독립 선언서를 선포한 후 미국과 영국은 약 8년의 길고 긴 독립 전쟁을 치렀

다. 미국의 독립을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인명들의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래서 생긴 표어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명언을 탄생시켰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 사상은... 자연법사상이 독립의 정당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평등하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정당한 자연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을 역설하였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존 로크의 글에서 인용했다고 한다. 존 로크는 '생명과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주장'했지만 건국의 대표들은 재산권 대신에 행복 추구권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한 이유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은 개인마다 행복에 대한 진정한 정의가 종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정부가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각주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하나같은 공통적인 꿈과 비전은 One Nation Under God이었다. 대륙의 대표 중의 한 사람이었던 존 아담스는 '우리의 헌법은 오로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는 다른 여타의 정부와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역설하였다 한다. 이 정신은 미국이 종교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조지 워싱턴도... '이성이나 경함을 통해 서나 종교적 원리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국가의 도덕성이란 싹들 수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런 건국의 아버지들의 꿈과 기도대로 신생 미합중국은 단기간 안에 세계의 으뜸 국가로 발돋움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라는 경구를 모든 화폐에 새겨 넣었다.

이것이 21세기 지구촌의 민주 경찰 역할로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후예들이 누리는 행복과 자유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어두운 세계의 통계들을 보라!

22년도 통계 자료의 의하면 한 해에 범법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재소자 통계가 120만 3천명으로 나와 있다. 매년 2%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여기에 마약사망자 10만 7천명, 음주 사망자 14만 명, 교통사고 사망자가 4만 2천명 이상, 자살자가 약 5만 명, 여기에 총기 사고로 생명을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 10만 명이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 엄청난

난 귀한 생명들이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들의 포로가 되어 자멸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리에서 살아가는 천문학적인 인구들까지 시야를 넓혀 본다면 과연 미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맞는지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상 낙원이면서 동시에 지상 지옥 같은 미국의 진정한 독립은 어떻게 언제쯤 이뤄질까? July 4th의 뉴욕의 태양은 밝게 비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250년 전에 이 땅에 하나씩 나라를 세우기를 다짐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꿈과 비전이 뭉클뭉클 가슴에 솟아오름을 느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In God We Trust !!!

jykim47@gmail.com

# 푸/른/초/장

정승환 목사

(필라델피아장로교회)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역대하, 또 이사야서 중간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 아주 유명하고 고도 익숙한 왕입니다. 이분에 관한 특이한 점은 그 선대 아버지 아하스와 그 아들 므낫세, 두 왕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특히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한 왕들 사이에서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왕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29년간 통치했습니다. 선한 왕일지라도 완벽한 왕은 없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히스기야 왕에 관한 짧은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몇 가지 짚어보기 원합니다.

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기준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은 불신의 기준점이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는 말은

다윗 왕의 행적에서 배운 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보고 들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신실함이 나의 신앙인격이 나의 섬김이 유튜브 라이브처럼 생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누군

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 되었는데 그 시작점은 우상타파였습니다. 우선 여러 산당을 제거하였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산당을 제거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처럼 행하였던 선한 왕들조차 거의 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산당과 같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 개혁을 철저히 거부하는 철옹성과 같은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맞춤형 파괴였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들이 그 옛날 사막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베포에게 절

가부터는 사람들이 그것에 절을 하기 시작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놋베포와 하나님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놋베포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없이 놋베포만 남고 아주 강력한 우상이 된 것입니다. 놋베포가 하나님과 분리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때 놋베포가 자체적인 힘이 있는 것이 양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더 이상 없어질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모든 것들은 우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화려한 과거를 믿는 것이 아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

가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때 그 종은 주인 행세를 하게됩니다. 마치 개하시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후스단'의 뜻을 찾아보니, '놋베포'라고 합니다. 놋베포를 부숴놓고 놋베포라고 불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놋베포를 가차없이 잘라 부셔버린 후 땅바닥에 던져놓고 '너는 그저 놋조각이구나' '놋조각'으로 만들어는 뽀 주체에 '하면서 비아냥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미혹했던 놋베포의 정체는 '놋조각'이었던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두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 병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들이 올 때에 히스기야처럼 놋베포는 놋베포일 뿐, 사람은 사람일 뿐, 병은 병일 뿐,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두려워 할 존재도 그 앞에 경배할 대상도 아닌, 부숴버려, 부서지는 느후스단일 뿐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향하여 "느후스단!" 이라고 외쳐보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좌정-통치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으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병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히스기야와 같이 오직 담대하여 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느후스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yspcsamchung@gmail.com

# 느후스단

## 열왕기하 18:1-4

첫째로, 먼저 3절에서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남유다에서 선한 왕의 대표적 기준이 다윗이었고 다윗과 같이 했으면 선한 왕인 것입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말이 나오면 저주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영적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기준점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약공동체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삶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준

원문적으로 '다윗 비슷하게' '다윗처럼'이라고 보다는 다윗이 행한 "모든 것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후대 왕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또 다윗을 뛰어넘는 무엇을 바라셨다라기 보다, 다윗과 똑같이, 다윗의 행적에서 읽고 들은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가는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우리의 소원이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남겨 주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우상들을 철저히 타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고 그 결과 그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

고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놋베포까지도 부숴버린 뒤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세 때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약 600-700년 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장대 높이를 달렸던 놋베포 (민 21:8-9)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분명히 살아있었던 그 놋베포가 어느 샌

남을 오늘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승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우상을 타파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라 불립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무슨 은사

# 나의 진리로 살리라...

(3면에서 계속)

그러나 "진리"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이루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진리이거나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때가 되면 명확하고 절실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 3. 전도를 용감한 전복 행위로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

모험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이다.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를 갖고 대화를 시작했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도록 초대해야 한다.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탄과 결별하고 자신의 모든 악행을 버리

도록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를 가치와 선호의 영역으로 격하시킨 오늘날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런 대화는 거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한 전도가 대담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진정한 복음 선포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감히 말한다. 그리스도의 주장을 논할 때 우리는 나의 진리와 당신의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 우

리는 전 세계에 적용되는 공개 선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둘째, 강력한 형태의 전도는 또 다른 공격적인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대담하다. 즉,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살해에 연루되어 있고,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수치의 감옥에서 해방해 주실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것이다.

교회의 임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관심을 놀라운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선포 속에 담긴 부담스러운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지금도 그분은 아람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증언할 수 있는 탄력성을 주신다.

복음의 공격 진리를 포기한 채, 개인화되고 사유화된 신앙

의 다원적 한계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결국 복음전도가 주는 모험과 기독교의 핵심을 잃을 것이다. 이제는 나의 진리로 사는 세상이라고? 아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선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재빨리 회개하고 좋은 소식을 믿으라."

by Trevin Wax, TGC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보면서, 자녀 세대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된다. 성적 정체성의 문제, AI 등 인터넷 교회의 출현과 이에 대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의 약화, 가정 해체에 준하는 지나친 개인주의의 심화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사역자로서 몸부림치며 가르치고 강조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열악한 이민교회의 형편에서 돌아보면 더욱 간절해 지는 것 같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부족하지만, 한가지 해법을 찾았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그저 영어 잘하는 이엠편 사역자를 잘 찾아 주는 것에 그칠것이 아니라, 조금 둔탁해 보여도 이미 기존 세대가 가장 자신있게 경험하고 맛보았던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비록, 아날로그 영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터지될 때, 충분히 아이들이 변화를 이루어내더라는 것이다.

재미없는 전통 방법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결국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따라 지음 받은 영적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본 교회에서 강조하며

요한 요소이다.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 물질, 돈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현금 생활을 강조하며 가르쳤다. 2세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십일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연습을 하도록 했다. 말라기 3장10절의 말씀을 믿고, 힘써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강조했다. 항상, 물질을 얻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뒤에 자신의 필요를 따라 검소하게 사용하면, 반드시 물질에 궁핍함이 없는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읊이 했던 것처럼, 가족들이 교회에 예배로 나아올 때,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각자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앞에 나아올 것을 강조하며 가르쳤다. 하나님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면, 나이가 어린 2세여도 당당하지 못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산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도록 하셨다. 예배에 실패하면, 곧 인생의 실패가 되기 때문이다.

3. 새벽기도의 신앙유산

다음 세대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새벽기도이다. 그러나 새벽기도를 할 수

는 특수상황과 말세지말의 영적인 환경을 돌아볼 때, 점점 더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온 가족이 손자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직진할 수 있는 것, 거침없는 순종, 반드시 그 열매를 좋게 하시는 것을 본다.

더불어 매월 1일은 월삭 새벽 예배라고 해서, 새벽에 나온 모든 2세들이 강단위에 올라와서 안수기도를 받는다. 많이 졸다가 받는 안수기도이지만, 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 매월 1일만 되던 강단에 무릎꿇고 앉아서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안수 기도 받은 것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 생각된다. 혹여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 새벽의 은혜가 저들을 붙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 더불어, 월삭 예배, 그날 새벽예배 후에는 아침 식사가 제공이 된다. 아이들이 교회로 불려 오는 것이 신앙교육의 첫 걸음인데, 이때 영의 양식과 더불어 육의 양식도 중요하다.

다인 선교를 마치게 되면, 나이스크 예배회복 수련회가 기다린다. 모두 차량으로 여러 주를 이동하면서 곳곳에 영적 주경을 넓혀간다. VBS를 통해, 중고등부 청년부가 주일학교를 섬긴다. SFC 수련회를 통해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과 경험들 속에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된다.

2세들이 최소한 3-4개의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본다. 계속 영적인 스파크를 제공하고, 신앙의 뿌리내리기와 영적인 심지를 굳히기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본 교회보다 더 많이 활발하게 사역하는 교회들도 많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본다. 영적근육은 훈련을 통해서 강화되는 데, 2세들에게 사역을 통한 영적결단의 모멘텀 제공은 너무나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의 추억이 든든한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2세들에게 영적 모멘텀의 기회제공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

7. 교회중심, 온세대 예배

2세들에게는 영어가 더 편하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드리는 EM으로 보내달라고 한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oc0316@gmail.com

**Q:** 한국의 존경받는 인물인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략에서 나라를 구한 명장이요 영웅인데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 오기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역시 존경받는 인물인데 그들이 구원받았나요? 그들이 복음을 못 들었다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 LA에서 김덕삼

이순신 상담

**A:** 이승구 교수는 우리의 구원문제에 대해 오늘의 신학계는 3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배타주의 (exclusivism)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 4: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요 14: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내포주의 (inclusivism)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karl Rahner)는 "의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주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자신의 종교내에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산 자들은 실질적으로 구속의 은혜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포주의(Inclusivism)를 주장하였습니다.

클락 파녹(Clark Pinnock)이란 사람은 트리니티 신학교와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가르친 교수요 IVF에서 활동적인 일을 한 캐나다인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주의적 내포주의를 말하며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 밖에서도 적극적인 계시를 주시고 관용하여 오셨다면 만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들을 다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때와 장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의 열망으로 이미 만우(우의신) 그리스도 안 내포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포주의(inclusivism)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위 한국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존경받는 인물은 신실하게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기에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파녹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특별한총을 일반 은총과 구별하지 않고 마치 일반 은총 사역 안에서도 구원적 은혜가 있는 것처럼 언급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셋째가 구원의 길에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가 있습니다.오늘날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 구원을 등산으로 비유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말합니다. 이 입장의 대표적인 대변자는 존 히크(John Hick)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그것통 안에서구원을 받고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교의 전통을 통하여, 힌두교도들은 힌두교의 전통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존 히크는 그리스도 중심적 접근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우리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 분은 신이시고 모든 종교들은 그를 섬기며 그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히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부인하므로 그의 사상은 비성경적인 악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서도, 못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

아날로그 영성, 아날로그 목회라고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2세 교육에 맞춘 열매를 부족하지만 적어보았다. 다윗이 사울의 감옥과 장비를 가지고 나가가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편한 것을 도구로 골라왔을 물리친 것을 떠올린다.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고 무리하게 흉내 내고 카피할 필요가 없다.

배움의 장은 열여두어야 하지만,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경험한 그 방편으로, 가장 힘 있게 성령님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으리라 여겨진다. 많이 부족하지만, 아날로그 목회도 주눅들 필요 없음을 말하고 싶어 몇 가지 적어 보았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다 된 것 아니겠는가!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아날로그 영성의 자녀교육

-말씀, 기도, 예배, 한글, 훈련-

가르쳐온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녀교육에 대해, 본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의 칭찬(?)에 기대어, 쑥스러운 마음으로 아날로그 영성에 기반한 자녀교육에 대해 소개해본다.

1. 주일 성수 신앙

가정의 우선순위가 자녀교육에 있듯이, 본 교회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의 교육을 사역의 우선순위에 두고 강조하며 지난 20년을 사역해왔다. 그 가운데 틈만나면 우리 2세들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주일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세 가지를 꼭 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를 부모들에게도 교육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아버지 집, 교회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일 신앙은 거친 세상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기초이며, 육신의 부모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축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임을 가르쳤다. 주일은 너의 날이 아니다. 세상없어도 교회가는 날이 주일이다. 주일은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없는 날임을 강조했다. 주일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도 없고, 교육도 없고, 하나님앞에 인생의 근본이 없어지는 것이다.

2. 십일조 신앙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육은 복된 신앙생활에 너무 중

요한 신앙인으로 가르쳐질 수 있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의 보증이 될 것이다. 본 교회 부모님은 자녀가 5명인데,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갖 태어난 아기까지 모두 일곱명이 하루도 안빠지고 새벽기도를 나온다. 때로는 안스러워 사모님에게 편하게 하시라고 해도, 받은 은혜가 있어서 웃으며 나온다. 부모가 물질과 환경에 넉넉함이 없어도, 최고의 교육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음을 본다.

이 아이들에게는 기준이 분명한 것을 본다. 그래서 꼬마들이지만, 질서가 있다. 역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녀노소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다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2세들이 새벽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벽기도는 한국사람만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 사상을 강조해야 한다. 매일 매일의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여명이 환히 밝아올 것을 믿어야 한다. 새벽기도하지 않는 한인교회를 생각할 수 없듯이, 한국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처럼 허락하신 새벽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새벽기도 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 주시고 책임져주실 것이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축복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4. 쉼, 월삭예배

매월 첫날을 월삭 새벽예배로, 첫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쉼 가족예배'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민자라

5. 한글전용의 신앙교육

교회는 개척때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을 EM, 영어권 예배로 보내지 않았다. 보통의 이민 교회들은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교회를 오면, 아이들의 편한 언어인 영어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게 되고, 부모들만이 한국어 예배를 드린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그들의 가정안에 벌써 언어로 말미암는 분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언어의 단절은 곧 부모자녀 세대간의 단절과 멀게는 자신의 고유한 민족 정체성의 위기까지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언어의 단절은 부모세대 유업(遺業)의 단절임을 강조하며, 영어가 훨씬 편한 중고등학생들도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도록 했다. EM 예배가 번성하여도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한국어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인사하는 태도, 신앙의 자세, 어른들을 향한 인사들에 있어서 너무 귀한 증거를 보게 되었다. 오늘날 담임목사님의 이름조차 모르고, 인사도 할 줄 모르는 2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언어가 불통하면 사상도 전달이 되지 못함을 잘 기억해야 한다.

6. 영적 모멘텀 기회제공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한해 동안의 행사 계획은 엄청나다. 특히 중고등부는 여름이 시작되면, 최소한 미주 이곳저곳을 누비며 배운 신앙의 삶을 적용하며 배우는 기회를 가진다. 여름이 시작되면, 3개월에 걸쳐 준비되고 시행되는 인디언 선교팀에 조인하여 헌신한다. 인

그러나 영어가 편하다고 해도 보내지 않는다. 물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면 선택하도록 하는 정도의 예외는 있다.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난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목사님의 설교를 전부 이해하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예배는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준다. 최선을 다해 이해를 도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귀를 통해, 언어로서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Revelation)된 말씀이 노출되는 만큼만 그렇게 알아듣게 된다는 의미이다.

20년을 그렇게 지나왔더니, 아이들도 당연한 줄 알고 저항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결과가 특별하다. 제대로 못알아 듣는 것 같아도 담임목사님이 무엇을 강조하는 지를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절로 알아듣고 있더라는 것이다. 한 말씀 안에서 같이 은혜의 풍기우를 묻히다 보니 어느새 고소한 은혜의 향기 냄새를 같이 맡기 시작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인사하는 태도, 얼굴 표정,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을 본다. 안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환송의 시간에는 교회와 담임목사 선생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감사로 고백하게 되었다. 교회로 나아가,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왔고, 그들이 가진 좋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통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2024 즐거운 여름방학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매일 매일 폭염이니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조심하라는 뉴스와 일기예보가 계속 뉴스에 나온다. 내리쬐는 여름햇빛과 바람 한점 없는 찌는 듯한 날씨에 머리가 아플지경이다.
낯선 6월 한국 날씨는 오랜만에 모국에 온 아줌마를 당황시킨다. 다행히 나와 함께 먼저 온 아들이 피곤하고 힘들텐데 오자마자 분주한 엄마를 열심히 잘 쫓아다니며 잘 적응해 주어 고맙다.
휴~ 그래도 정말 덥기는 덥다.
가족들과 반가운 재회를 하고 작년 미국에서 뵈고 일년 사이 더 연로하신 친정어머님을 보니 마음이 찜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는 모습에 안심하며 감사하다.
한국 오면 뭐 먹고 싶었어? 뭐 맛있는 거 먹을까? 하며 매일 묻지만, 근사한 식당이나 유명 맛집보다 작은언니가 준비해 주는 텃밭에서 기른 다양하고 싱싱한 여름 쌈야채를 한쌈 두쌈 입 안 가득 넣어 엄마가 갖 담긴 아삭아삭 여린 열무김치를 가족들과 웃으며 먹는 저녁식사가 가장 맛있고 행복하다.
감사하게 두 남매 모두 한국어를 매우 잘해서 미국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한국 가족들과 페이스타임을 하며 재잘재잘 말을 잘하여 기뻛었는데 정말 실전 생활 한국어 하게 된 열한 살 아들이 전혀 무리 없이 척척 적응하

여 생활하고, 아빠와 누나가 오기 전 한 달 동안 검토장까지 다니게 되어 한국 친구들과 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 대견하다. 자신이 한국어를 어색함 없이 잘해서 검토장, 편의점이나 도서관에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런데 너는 왜 학교에 안갔니?" 하고 물어보면 "저 미국에서 왔는데요." 대답하면 모두 깜짝 놀란다고 하며 즐거워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눈치다.
20살 새내기엔 만나 믿음 안에 서로에게 가장 큰 기도의 동지이자 청춘의 가장 빛나던 시절을 함께 울며 웃으며 보낸 대학동기 친구들은 오기 전부터 아무리 바빠도 이번 한국방문에는 두 번 이

상의 모임을 가져야 한다며 나를 환영해 주고, 만남에 기대하고 있었다.
대학 졸업 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며 분주한 시간을 보낸 우리는 이제 첫 아이는 대학에 보내 한숨 돌리며, 둘째 셋째 자녀들도 중고생이 되어 예전보다 부담 없이 만남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한결같은 친구들의 넉넉한 마음과 사랑에 1995년 한참 어울려 다니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년엔 30주년 기념으로 미국과 유럽여행을 함께 하자는 신나는 여행계획도 세우고, 중년이 되어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의 책임감있는 믿는 자의 삶의 무게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별히 목회하는 친구들은 한국교회의 현실과 침체, 그리고 언론에서 부각되는 교회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젊은이들을 점점 교회에 회의를 갖게하고 떠나게 한다고 걱정했다. 생활에서 오는 현실적인 경제문제도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을 만든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 함께 얘기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우리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모두 소망했다.
상전벽해(桑田碧海)
서울은 내가 마지막 방문한 6년 사이 정말 '상전벽해'다. '뽕나무 발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인 이 고사성어가 내 입에서 서울을 보고 이렇게 터져 나올 줄은 몰랐다. 내 고향 서울은 너무나 달라졌다. 강남과 강북, 강동과 강서가 이제 어느 곳 하나 서운하거나 모자람 없이 골고

은 그 아래 없어도 시원해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만나는 여러나라의 관광객들의 모습에 글로벌 한류를 실감한다. 지하철에서 대화를 나누게 된 아일랜드 청년은 혼자 여행을 왔으며 전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한다. 나도 미국에서 모국에 방문 중이라 하자, 관광하며 느낀 우리나라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해 준다. 고맙고 기쁘다.
장박으로 보이는 산과 들이



루 멋있게 발전하고 편리하며 화려해졌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동안 서울은 더 빠르게 그 모습을 바꾸었다. 무더위를 피하라고 보행자들을 위한 커다란 파라솔이 건물마다 세워져 한숨 돌리는 그들이 되어주는 광경

푸르고 푸르다. 소나기가 씻고 간 들판은 싱싱한 향기가 가득하다. 6년 만에 즐기는 나의 신나는 여름방학. 소중하고 감사하다. 맞아! 나 지금 한국이지...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랑거 바늘 콧은 채 대피한 아이들...러,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러시아가 8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최소 41명이 사망하고, 170여명이 다쳤다. 특히 수도 키이우에 어린이병원인 미사일 공격을 받아 어린



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뉴욕타임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어린이 병원인 오흐마트디트 병원을 타격했다. 이 공격으로 독성학 병동과 몇몇 수술실을 비롯해 병원 2층 건물 일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성인 2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7명 포함 최소 16명이 다쳤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쯤 공습 사이렌이 울려 일부 환자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병원 밖으로 대피했다. 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아이들은 치료를 급하게 중단하고 건물 창문을 통해 대피소로 옮겨졌다. 건물 밖으로 이동이 어려웠던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병실에 남겨져, 새벽이 두꺼운 식당으로 대피했다.

사이렌이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KH-101이 병원 건물로 날아들었다. 외과 의사인 티모피 드보로비 박사는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수술을 하고 있던 외과 의사들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생후 두 달 된 아기의 엄마인 스비틀라나 크라브첸코(33)는 "파편과 먼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며 "아기를 지키기 위해 천으로 아기 얼굴을 덮은 채 무너진 병원에서 겨우 빠져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신경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안드리 마가레프스카(9)는 공습 당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부모와 함께 병실에 있었다. 그의 어머니 올레나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 폭발음이 들렸고 나와 내 남편은 둘 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며 "창문이 모두 깨졌고, 우리는 공격이 또 발생하거나 잔해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베개로 아들을 감쌌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암 병동 환자들을 비롯해 미처 대피소를 찾지 못한 어린 환자들이 몸에 링거 바늘을 꽂은 채 잔해와 먼지가 나뉘는 길 위에 덩그러니 앉아있었다고 전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에 따르면 의사 1명을 포함해 최소 2명이 숨졌으며 16명이 다쳤다. 부상자 16명 중 7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잔해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갇혀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블로디미르 조브니르 병원장은 "폭격

당시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피가 묻은 복도, 무너진 천장, 파괴된 수술실을 사진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유엔은 영국, 프랑스, 에콰도르, 슬로베니아, 미국의 요청에 따라 9일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이번 공습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잔혹함을 끔찍하게 상기시킨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계속 함께하고, 우리가 러시아의 침략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공습에 대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 등 군수시설을 겨냥한 작전이었다며, 민간 시설을 고의로 공격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부인했다.

"바이든, 파킨슨 병 전문의 만났다" ... 계속되는 인지력 논란



파킨슨병 전문가가 지난해부터 8개월 동안 8차례 백악관에 방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 질문에 백악관 대변인이 즉답을 피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NYT는 이날 백악관 출입 기록을 인용해 월터 리드 소속 신경과 전문의인 케빈 케너드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케너드는 파킨슨병 전문가로 NYT는 "케너드와 대통령 주치의의 만남은 지난 2월 28일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 정기 검진을 한 달여 앞두고 이뤄졌다"고 했다. 이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3차례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고, 그때마다 신경과 전문의와 만났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신경과 전문의와 만난 것은 3차례뿐이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NYT의 보도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지자 장-피에르 대변인은 사생활과 보안을 이유로 케너드의 백악관 방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악관이 대통령 주치의의 명의로 발표했던 성명에 케너드의 이름을 공개해 방문 사실이 알려진 후라 오히려 반발이 거세졌다. 특히 CBS 기자 에드 오피크가 "케너드가 특별히 대통령의 상태 때문에 백악관에 온 것인가"라고 거듭 물었음에도 장-피에르 대변인은 "보안상 이유로 이름을 공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피부와 의사부터 신경과 의사까지, 전문의의 이름을 널리 공유할 수

는 없다"고 같은 답을 반복해 고성이 오갔다.
평소에도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과 출입기자들 사이는 좋지 않은 편이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대두된 후 백악관 브리핑룸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된 모습이라고 NYT는 전했다.

블룸버그 10억 달러 기부로 존스홉킨스 의대생 학비 무료화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미국 뉴욕시장의 존스홉킨스 의대에 10억 달러(약 1조3800억원)를 기부했다. 이 기부금으로 존스홉킨스 의대생 대부분이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8일 워싱턴포스트, CNN 등에 따르면 블룸버그 전 시장은 블룸버그자선단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의사와 간호사, 공중보건 전문가 부족이라는 사태에 직면해 있지만 이 분야를 배우는데 드는 높은 비용이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존스홉킨스 의대에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2018년에도 모교인 존스홉킨스대에 18억 달러를 기부했다.

존스홉킨스대는 블룸버그 기부금을 받아 이번 가을 학기부터 가족의 연수입이 30만 달러(약 4억1400만원) 이하인 의대생들의 학비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가족의 연수입이 17만 5000 달러(약 2억4000만원)에 못 미칠 경우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공중보건·간호대학원의 재정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존스홉킨스 의대의 학비는 연 6만5000 달러(약 8980만원)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높은 등록금 때문에 의대를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또 의대를 다니면서 안게 된 막대한 등록금 부채는 의사가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를 떠나 수익성이 좋은 분야로 이동하는 원인이 됐다.

거액 기부로 의대생 등록금을 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뉴욕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학생들은 전직 교수이자 이사회 의장인 루스 고테스만의 10억 달러 기부로 등록금 면제를 받았다. 뉴욕대(NYU)의 대는 2018년 미국 주요 의대로는 처음으로 등록금을 무료화했다.

6월도 가장 더웠다... 세계 기온 13개월째 최고 행진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이 6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간 평균기온은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연속으로 매월 기존 최고치를 넘어섰다.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올해 6월 지표면 평균기온은 16.66도로 측정됐다. 이는 지난해 6월(16.52도)보다 0.14도, 1991~2020년 동월 평균치(15.99도)보다 0.67도 상승한 것이다. 지난달 북위 60도에서 남위 60도 사이 해수면 평균온도도 6월 사상 최고치인 20.85도였다. 1940년 이후 지표면 평균기온

을 따져 보면 지난달은 지난해 7월(16.95도)과 8월(16.82도)에 이어 세 번째로 더운 달이었다. C3S는 "지난달까지 12개월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은 관측 사상 가장 높았고, 세계적인 산업화 이전인 1805~1900년보다 1.64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동남부와 튀르키예, 캐나다 동부, 미국 서부, 멕시코, 브라질, 중동, 아프리카 북부의 기온이 평균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외신은 C3S의 자료를 근거로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인도·태국 등에는 이른 불볕더위가 찾아왔고, 중국·브라질·프랑스에서는 홍수가 발생했다. 동태평양 적도 인근에선 바다 수온을 올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 엘니뇨가 최근 1년간 발생했고, 이제는 반대 현상인 라니냐로 전환되고 있다. 니콜라스 줄리앙 C3S 선임연구원은 "해수면 온도가 지금처럼 상승하는 한 라니냐로 바뀌어도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더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이겼다" 시민 수만명 거리로 쏟아져나와 환호



좌파 연합이 1위를 차지하며 극우 정당의 집권을 저지했다는 프랑스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7일(현지시간) 밤 파리, 리옹 등 대도시에서는 수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환호했다.

파리 시민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레퓌블리크 광장 등에 모여 "우리가 이겼다" "모든 사람이 파시스트를 싫어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밤새 승리를 축하했다. 프랑스 당국은 폭동을 우려해 파리 지역 5000명 등 전국에 약 3만명의 경찰을 배치했으나 심각한 폭력 사태는 없었다.

이날 선거 결과를 전하는 좌파 신문 리베라 시옹의 제목은 "C'est Ouf"였다. "대박" 또는 "미쳤다"는 의미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프랑스 선거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결과일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도 "충격적"이라고 보도했다.

유럽과 미국의 좌파 정치인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밤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영국 노동당의 총선 승리와 프랑스의 극우파 거부를 환영하며 "(영국과 프랑스가) 진보와 사회 발전에 '예스'를, 권리와 자유의 퇴보에 '노'를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프랑스 정치인들이 극단주의에 맞서 뭉쳤다면서 남미인들도 이 같은 진보세력 간 대화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좌파를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우익 극단주의를 패배시키고 승리한 프랑스 좌파에게 축하드린다"며 "알고 보니 정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인기가 있다"고 엑스에 썼다.



#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94. 이태성(1888-1942)

이태성은 고종 25년 1888년 9월 15일에 함경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그의 한자 이름은 李太成 또는 李泰成으로 적었다. 그는 세례를 받아 장로교인이 되었다. 하와이 노동 이민을 계획한 이태성은 광무 8년 곧 1904년 1월에 캘리포니아를 타고 태평양을 반쯤 건너 그달 23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 알파벳으로 Ye Tai Sung으로 썼다.

이태성은 오아후섬 에와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에와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몇 년간 농장 생활을 한 후 통역자로 변신하여 하와이 법정에 선 동포를 위하여 통역하였고, 이민을 살아가는 동포를 돕는 이민 센터에서 봉사하였다.

#### 호놀룰루 한인 기독교청년회 총무

이태성은 1914년에 호놀룰루 기독교청년회(YMCA) 한인부 총무로 선임되었다. 호놀룰루 기독교청년회 한인부는 누아누 청년회 한인부라고도 불렀다. 그는 한인 청년회를 위하여 직업교육을 담당하였고, 미국 본토로 유학을 가는 한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권사

1918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제13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이 연회에서 감독 애드나 W. 레오나르드 목사는 이태성을 호놀룰루 제일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하와이 선교연회는 이태성 외에도 한재명과 연계송을 본 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그리고 본 교회에 지방전도사로 안원규, 남세운, 박낙M을 파송하였고, 방WC를 작년에 이어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이태성이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될 당시 본 교회의 교

세를 그달에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된 교회 통계에서 찾을 수 있다. 학습 교인은 34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16명이었으며, 주일 학교는 두 곳에 있었는데 교사와 직원은 21명이었으며, 등록한 학생은 181명이었고, 엠피스 청년회에 28명이 등록하였다. 훈련을 위하여 40달러를 지불하였고, 기타 비용이 50달러였다. 예배당은 당시 시가가 32,000달러였고, 지난 한 해 동안 건물에 든 비용은 320달러였다.



제14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1919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이 하와이 선교연회는 이태성을 2년째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지방전도사로 작년보다 1명이 더 많은 4명을 파송하였는데 안원규, 남세운은 작년에 이어 이해에도 파송되었고, 박낙M 대신에 정원명과 황계수를 파송하였다. 방WC 목사는 다시 파송되었다. 그런데 1919년 하와이 선교연회록에 교세 통계 보고가 실리지 않아 이태성이 섬긴 1년간의 통계를 찾을 수 없다. 이태성은 2년간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권사로서 섬겼다. 호놀룰루 제일 한인감리교회 권사직을 그만두면서 1920년부터 이태성은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 호놀룰루 한인 기독교청년회 총무

1922년 3월에 이태성은 동양인의 덕예지(德禮知) 교육을 장려하였다. 특별히 연례 각 방면으로 확장을 계획하면서 1천 명 회원 모집 캠페인을 열고 각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그해 10월에 150여 청년이 간천회로 모여 관현악단의 행진곡 후에 이태성이 간단하게 소개한 후 김찬재의 개회사,

김페이트의 독창, 관현악단의 연주, 구락부 대표 박관두, 강영각, 김길석, 문옥, 박진하의 간단한 연설, 유스시의 피아노 독주 등이 있는 후 친목하고 알로하오리를 부르고 마쳤다.

이듬해 4월에는 YMCA에서 100여명 한인 남녀 학생이 친목회로 모여 일동이 창가를 부른 후 취지 설명이 있었고, 남페니가 독창하고, 안원규가 연설하며, 강영각이 나팔 독주를 하고, 정원명이 연설하며, 박조스핀이 독창하고, 환등 관람 후 이태성이 답사를 하였다. 유희와 다가가 있고 난 뒤 알로하로 마쳤다. 그해 6월, YMCA 한인부의 1년 사업을 보고했다. 첫째, 통상 회원이 78명, 특별 회원이 28명, 명예 회원이 1명, 사업 회원이 1명, 학생 회원이 35명, 유지 회원이 4명, 목사 회원이 14명으로 총회원이 61명이었고, 둘째, 특별복음회를 20차 모였는데 구세주를 믿기로 작정한 형제가 4명였고, 성경 공부는 36차 집회였는데 참석한 인원은 199명이었다. 셋째, 총 8차 사교회에 참석한 인원이 765명이었으며, 34차로 모인 오찬회와 애잔회에 참석한 인원은 620명이었다. 넷째, 교육을 위한 41차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1,302명이었고, 46차로 모인 구락부에 720명이 참석하였으며, 20차 모인 국어교사 연수회에 115명이 참석하였고,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와일루아 해변에서 모인 교육 관계 모임에 18명이 참석하였다. 다섯째, 서적부는 53차 집회하였는데 617명이 참석하였다. 일곱째, 동서양을 내왕하는 33척 기선에 올라 전도하였는데 한인 30인과 미국인 8인을 만났고, 그들은 선교사, 교육자, 정치가, 사업가 그리고 학생이었다. 여덟째, 병원과 감옥을 심방하였는데 문동 병원에 6인, 삼성 병원에 46인, 리아하 흥 병원에 14인, 감옥에 죄수 12인을 심방하였다. 아홉째, 공동사업부는 한인 사무편리소, 한인교사 연수회, 한인 사업회 그리고 각 종교사회와 활동하였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과 불행한 인고로 인하여 사업 없이 방황하는 동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노동을 주선하여 직업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해 7월에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 산하 한인부가 한국어 학교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조직하였을 때 4명 교섭위원에 이태성이 포함되었다. 같은 달에 누아누 청년회관에서 각 교회와 사회단체 대표가 모여 모국에 세울 민립대학을 위하여 기성회를 조직하고 재정을 모아 미주 동포와 같이 후원하기로 하고 간부 임원을 조직하였는데 이태성은 재정모집원으로 안원규와 김이제와 함께 선임되었다. 그런데 '이곳 우리 적은 소학교도 부지하기에 이처럼 어려운데 어찌 대학교 설립을 위하여 없는 돈을 내리요'하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그달에 여러 번 재정상 착수

하지 못하던 미국 북감리교 학생기숙사를 추기 개학에 맞추어 남자기숙사만 세우기로 하고, 이태성 외에도 현순, 안원규, 강영각이 극력 주선하기로 하였다.

1923년 8월에 이태성 등 3인 교섭위원이 YMCA 회관에서 한국어 초등/소학 3권을 출판하기로 하고 국민보사 영업부에서 인쇄하기로 공결하였다. 한인 청년 음악 발달이 필요함을 깨닫고, 가을부터 음악부를 설치하여 음악을 가르칠뿐더러 음악대를 조직하고, 음악 재능을 갖춘 강영각을 초빙하였다.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한인 500여 명이 학살한 사건에 대하여 호놀룰루에 있는 대한인 민단이 주최하여 워싱턴에 있는 구미위원부를 통하여 미국 국무부에 조사를 청원하기로 하였는데 이태성이 5인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그해 11월에 하와이 한인사회와 종교단체 대표 10여 명이 발기하여 금주 금연을 목적으로 한인교포회가 조직되었는데 YMCA 대표로 이태성이 선임되어 봉사했다. 그해 연말에 하와이 대학생 조재연이 동 대학 대표로서 캘리포니아주 아세로마에서 개최되는 학생대회에 참석하였다.

1924년을 맞아 새로 임원을 조직하였다. 회장에 양우찬, 부회장에 정태화, 서기에 강영각이었고, 이태성은 재무와 총무를 겸임했다. 그해 2월에 YMCA 한인부는 호놀룰루에 본부를 둔 범태평양회에 가입하였다. 이태성이 YMCA 한인부 총무로서 10주년이 되어 3개월간 휴가를 얻어 그해 6월에 샌프란시스코를 들러 상항 사업가 주위로 금문 공원에서 80여 명이 모인 야유회에 참석한 후 시카고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고, 7월에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설립 예배에 참석하여 YMCA 한인부 총무로서 축사를 담당하였다. 그해 마지막 달에 정성복이 테네시주에 있는 레바논 대학에 입학하여 약간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듬해 3월에 10일간 이태성은 한인 회원 모집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필지서와 함께 이태성은 그해 9월에 하와이 한인학생연회보를 발간하여 한인 기독교 학생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고, 한인 기독교 학생의 정체성 교육에 노력했다. 그달에 1만여 달러로 건설한 한인 감리교 기숙사를 가을 학기부터 확장하기 위하여 최두옥을 재무로, 김이제를 간사로 선임하여 감리사 프라이 박사에게 청원하기로 하고, 이태성 등으로 6인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제일한인감리교회 찬양대가 한동안 없었는데 그해 연말에 이태성이 앞장서서 지휘자로 강영옥을, 피아니스트로 황노라를 세우고 다시 조직하였다. 이태성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던 조국을 돕기 위해 '연합구제금 모집위원회'에 가담하여 선전부 책임자로 활동했다.

대회가 호놀룰루에서 모였는데 이태성 등 3인 준비위원회는 미국 내무성 일행과 각국 대표를 위한 환영회에서 태극기를 세우고, 환영 초대 만찬에 한국 음식을 제공하며,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국 학생을 그 대학 대표로 주선하였다. 그해 7월에 이태성은 약 40명 청년을 모아 호놀룰루 인근 카니오에서 나를 동안 윈족회를 개최하였고, 그해 7월에 아드 캠프이 3일 동안 40여 명 아동을 모아 목고리아 해변에서 있었다.

1928년 4월에 하와이 호놀룰루 유지인사가 대한민족 통일축성회를 조직하였을 때 이태성이 27명 위원회와 서무부 7명 집행 위원에 선임되었는데 하와이에 거주하던 이삼만 박사 등 여러 명이 축하문을 보냈다. 2년 뒤 8월에 하와이 대학에 한국 국어와 역사 등의 과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이태성 등 호환 유지인사가 '한국어, 문화 및 역사 위원회'를 발기하고, 오찬회를 열어 그해 동 대학에 재직 학생 중에 한국 문화에 취미를 가진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이들 과목을 가르칠 교수를 찾도록 하였다.

이태성은 1931년 5월 말에 16년간의 총무직을 사직하였다. 이듬해 11월에 그의 노력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각 학교와 등록된 남녀 학생은 중앙중학교에 55명과 45명, 갈라가와 중학교에 5명과 2명, 릴리휴아 중학교에 70명과 60명, 리리요칼라니 중학교에 13명과 7명, 맥길리 중학교에 57명과 48명, 우로스빌트 중학교에 1명과 3명, 와싱턴 중학교에 4명과 12명, 가와이 중학교에 9명과 2명, 힐로 중학교에 각각 26명, 호노가와 중학교에 4명과 2명, 코나와나 중학교에 각각 4명이었다.

총무직을 사임한 후에도 이태성은 1935년에 상항 한인감리교회에서 '청년 운동의 필요'에 대해서 설교하였고, YMCA 한인부 대륙관광단을 조직하여 나성과 덴버를 여행도록 주선했으며, 이듬해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일제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하여 하와이 한인 예수교 연합회가 조직한 7인 이사회 이사로 봉사했고, 하와이 군도를 순행하며 한인 교회와 청년 단체를 방문하고 전도 강연을 하였고, 1939년에는 한중 동맹단 6인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대/중/소 하와이 한인 졸업생이 300명이라고 신화민보에 알려진 다음 달인 1942년 5월 22일에 이태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튿날 23일에 예배당에서 내외국 인사가 모인 가운데 장례식을 하였는데 그의 죽음은 한인사회의 일대 손해라고도 하였다. 그가 소천한 지 63년이 되던 2005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하와이 한인 청년 교육사업에 이바지한 그에게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안인교회</b></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blqusa@yahoo.com / www.blqcc.com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남가주든단교회</b></p> <p>담임목사: 김홍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714)772-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b>남가주사랑의교회</b></p> <p>담임목사: 노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결혼이혼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장소:KDC, 김명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동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b>미주양곡교회</b></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310)749-4756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cl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b>복음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베델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전 1:30(수영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b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b>세계사망교회</b></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세계선교교회</b></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평일)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cs.com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p>
<p><b>실비치 사랑교회</b> (Seal Beach Se-F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랜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p>	<p><b>열매교회</b></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b>엘피사역원</b></p>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맹감리교회합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 집사님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Tel: (213)700-9828, www.elpisa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b>은혜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예배: 오후 7:3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714)446-6202, www.graec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세운교회</b></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b>좋은마을교회</b></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b>코너스톤 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평강교회</b></p> <p>담임목사: 송금란</p> <p>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 기도: 오후 1:00 TEE-동요문성(주일):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매일 새벽 2:00-3: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p> <p>Tel: 213-383-9136, pyongs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들어가며]

\* '영성'이란 제한되고 비성경적인 용어 대신에 성경적이고 포괄적인 '경건'을 사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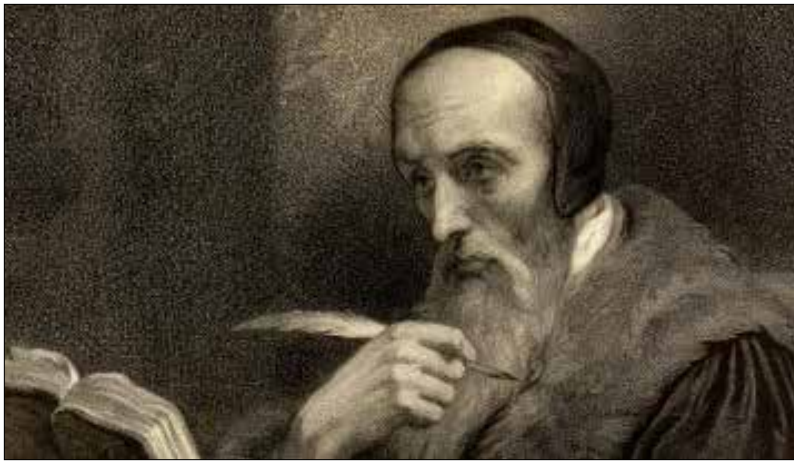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이다. 지금도 '영성'이란 용어가 심지어 개혁신학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지만, 그것은 성경에 전혀 표현되지 않은 단어일 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사제의 계급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용어이며, 사막의 수도자들이나 고행자들이 금욕주의적 삶을 추구했던 때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개혁신학자들이 칼빈이 이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가 영성신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매우 작은 몫부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이 용어와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 성경은 영성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영적(spiritual)이란 말은 있지만 '영성(spirituality)'이 아니라 '경건' 혹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리더들이 '개혁주의 영성'이란 단어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계급적인 신앙과 세미펠라기안(semi-Pelagian)과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을 향해 비판했던 칼빈주의 신앙 내용에 대한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용어 속에 포함된 사상과 개념들을 정확히 발본색원하여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과 그 근원이 비성경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영성은 후자의 개념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그 사용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남의 뜻,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일치된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경건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강요], 1.3.3.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에 이르지 못할 때 그것은 허방한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거두어주 칼빈이 [기독교강요] 초판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의 목적은 단지 어떤 초보적인 내용들을 소개함으로써,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으로써 참된 경건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독교강요의 목적 자체가 신자들이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경건은 신자들이 교리나 말씀

것을 포함함 경건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입을 만한 저작으로 최근에 출간되었음. 이 긴 제목 중 부제가 되는 부분은 출판업자가 붙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기독교 강요』의 성격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 부제가 지시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강요』가 경건과 구원에 관계된 책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경건"은 "사랑하고", 배워서,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용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성도들의 '영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견고한 내용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배워, '종교적인'이 용어는 '신앙적인'의 의미) 참된 삶, 덕목 그리고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시사한다. 칼빈의 경건은 그의 책에서 "나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나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통해,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기독교 신앙을 정당한 사람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지에 대한 최상의 대답이 될 것이다.

\* 『기독교강요』의 제목

칼빈은 1536년, 자신의 교의학적 주저 『기독교강요』 초판을 발간하면서, 이런 긴 제목을 붙였다. [기독교강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건에 관한 거의 모든 것과 구원의 교리가운데 있는 모든

점점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칼빈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신앙의 핵심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적 경건에 대해 더 명확한 구체적 내용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칼빈 자신의 경건 생활을 포함하여, 칼빈이 말하는 경건한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은 배틀즈(Ford Lewis Battles)가 편집한 『칼빈의 경건』과 『기독교강요』의 기도 부분과 칼빈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다수의 서적들을 인용하여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무엇보다 먼저 칼빈 자신이 바라본 자신의 생애를 알고자 하며, 또한 칼빈이 이해한 기독교인의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또한 기도에 관한 칼빈의 이해를 나열하고자 한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노후대책

이제 한 달 후면 학교를 그만 둔다. 은퇴의 시기로 들어서니 생소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은근한 스트레스가 된다. 메디케어 플랜 A, B 이외의 보편을 정하는 것, 소셜 시큐리티 연금 신청, 401k를 고정된 수입으로 만드는 것이 모두 새롭다.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들도 만나고 세미나도 참석하느라 바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떻게 매달 기초 생활비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수입이 없을 것을 예상하는 시점이 되니까 노후대책이라는 단어가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노후대책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아마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후의 경제생활에 대한 대책일 것이다. 노후대책은 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66살 이상인 한국노인의 40퍼센트가 빈곤 상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동안 주위 분들이 노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면 나는 별 생각 없이 "애들이 노후대책이예요"라고 대답을 했었다. 물론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막상 은퇴가 코앞에 다가오니까 마이너스 될 부분을 메꾸려면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모든 부모들이 수고하며 자녀를 키워왔고 그날도 노후에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 같다. 나 역시도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의존을 하고 싶지는 않다. 엄마 속도 모르는 딸아이는 왜 돈 걱정을 안 하던 엄마가 요즘에 돈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엄마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듯이 말한다. 이번 주말에는 세 아이가 모여서 경제적으로 엄마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의논을 한다고 하는데 고마운 마음과 찝찝한 마음이 반반이다.

그동안 나는 크게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는 절대 아니고 계산상으로는 도무지 손익이 안 맞는 상황에서도 그럭저럭 잘 살아온 삼십여년의 경험 때문이다. 보험료, 공과금, 식품비 등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와 수입을 대조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감사하면서도 숫자로 계산되어 나오는 은퇴 후 예상 수입 앞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한다.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 할까? 생명보험을 해약하고 조금이나마 쌓인 현금을 찾아서 쓸까?" 복잡한 생각 앞에서 나는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다가 대학시절 겁 없이 불렀던 찬양이 떠오른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정말 나에게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인지, 이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과 주님을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질문한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들킨 후에 나는 내 마음을 내려고 한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방해하는 걱정과 염려를 그 분의 발 앞에 내려놓기로 한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코앞에 다가와 있는 물질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기로 한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기로 한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듯하다. 처음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시작했던 때 받은 정말 쥐꼬리 같던 연봉,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조금씩 올라간 연봉이 연도 별로 쪼뼛 쪼뼛 있는 소셜 시큐리티에서 온 편지는 마치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한 것 같다. 그 기록을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은퇴 시기가 마침 소셜 시큐리티에서 나오는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도 감사하다. 이십 사 년 동안 전업교수 생활을 했지만 한국학교에서의 십 년은 아무 은퇴연금 혜택이 없었는데 그나마 십 사년의 미국학교 교수직에서 꼬박 꼬박 떼어 냈던 401k 덕분에 은퇴 후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시편 40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 그 분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하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노후대책을 포함한 다가 올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in NY, NJ, Hawaii, and other region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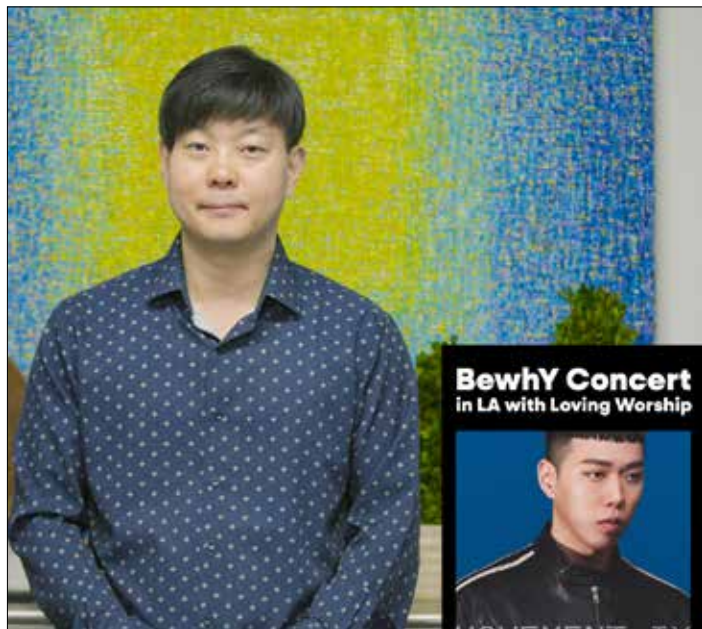
조셉 리 목사

### 비와이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 준비하는 러빙워십

지난 2023년 12월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제이어스와 함께 찬양콘서트를 성황리에 열어 큰반향을 일으킨 러빙워십(Loving Worship)이 올해 또다시 찬양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8월17일 LA다운타운에 위치한 노보극장에서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천 천재 힙합 가수, 비와이(BewhY)와 함께하는 러빙워십의 대표인 조셉 리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파”

지난해 열렸던 찬양콘서트를 준비할 때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의 청년사역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고, 고국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동포사회의 교회역시 일부 중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특별히 청년연합사역을 경험했던 기자의 눈으로는 집회가 은혜롭게 치러질까 보다는 제대로 모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 섞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콘서트가 열리고 나서 이러한 생각이 기우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조셉 리 목사(사진 우측아래는 비와이 콘서트 포스터)

조셉 리 목사는 “작년 12월 LA NOVO극장과 OC의 Grove극장에서 있었던 Loving Worship과 제이어스의 찬양 콘서트를 생각해본다.

3번의 Yeshua 찬양 콘서트에 4300명의 사람들이 다녀갔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였다”며 “그 중 젊은 청년들도 많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도전도 받았다. 교회들마다 젊은 청년들이 줄어들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무관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뉘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의 말에 공감하면서 “다음세대들이 사라지는 목회 현장 속에 러빙워십에게 주신 사명 중 하나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서 Local 교회와 잘 연결되어서 양육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군으로 잘 세워지도록 배후에서 기도를 쌓아 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비와이를 섭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목사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화선교사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남가주를 다시 일으키고 싶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예수야 콘서트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집회를 통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다고 확신한다. 이번 콘서트 역시 그때의 그 감동과 은혜를 부여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무엇보다 콘서트의 초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Appeal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BewhY를 계속 떠 올려 주셨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모두가 알다시피, BewhY의 힙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유명하다.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천 천재 힙합 가수, BewhY와 Loving Worship의 Concert를 꿈꾸며 기도하는 가운데 BewhY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뜻이 있었기에 LA Concert를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이번 BewhY Concert의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해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BewhY의 힙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 뿐만 아니라 빠른 랩을 하는데도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것으로 유명하다. BewhY도 하나님께서 기쁨 부으셔서 이러한 달

란트를 주셨음을 잘 알고 있다. 성공과 야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세우셨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러빙워십은 한 달에 두 번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사역도 함께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사역, 방송사역도 감당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문화선교사역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세워져야 하기에 러빙워십의 모든 스태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 Campus와 안 믿는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며 “이번 비와이 콘서트도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 할 뿐”이라고 말했다. 티켓 문의는 213-357-1565 (이용주 선교사), <https://www.axs.com/events/591645/bewhy-concert-with-loving-worship-tickets?q=bewhy> 로 하면된다.

(박준호 기자)

## 제10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성황리에 열려

(1면에서 계속)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처음사랑을 뽐내주기 때문”이라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된다. 한국교회 역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만나야 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사역지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집례로 성찬식을 가졌으며 최일식 목사(명예의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갯스이미지의 오프닝 공연과 박은성 목사 사회로 열린 저녁 집회는 베델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이미숙 선교사(튀르키예)의 대표기도가 있는 뒤, 송유세프 선교사(이집트)와 서헬렌 선교사(튀르키예)가 자신의 선교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또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나성영락교회 연합찬양대가 특송했으며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행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설교를 마치면서 황목사 기도회를 인도하며 첫날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은용 선교사(케냐) 사회와 베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둘째날 아침집회는 이나영 선교사(케냐) 기도, 박상선 선교사(태국)의 선교사 스토리, 김한요 목사(베델교회)의 설교 및 합심기도 인도로 진행됐다. 같은 날 저녁집회는 이정엽 목사(LA 온누리교회)의 사회와 LA온누리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심상은 목사(OC교협회장) 기도, 양영자 선교사(몽골)와 이정태 선교사(인도)의 선교사 스토리, 이우정 목사와 조영석 목사, 은혜한교회 연합찬양대의 특송, 한기홍 목사(은혜한교회)의 설교 및 기도회 인도로 진행됐다.

△강형민 선교사(키르기스



갯스이미지 찬양팀이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탄) 사회와 남가주사랑의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셋째 날 아침집회는 이대훈 선교사(동티모르) 기도, 박영란 선교사(그리스) 선교사 스토리, 류은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설교 및 합심기도인도로 진행됐다. 이날 저녁집회는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 사회와 남가주사랑의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협회장) 기도, 서은성 선교사(카자흐스탄)와 박인혜, 정예지 선교사(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 스토리, 데지 정의 섹스폰 특주, 남가주사랑의교회 연합찬양대 특송이 있었으며 노창수 목사가 설교와 선교대전,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했다.

△여성호 선교사(인도네시아) 사회와 남가주사랑의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넷째날 새벽기도회는 이종인 선교사(미국) 기도, 황썬 선교사(호주) 선교사 스토리, 김대영 목사(헬로심교회)의 설교 및 합심기도 인도로 진행됐다. 윤덕근 목사(케안티장로교회) 사회와 MK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폐회예배는 송성자 목사(순복음사랑교회) 기도, CTS혼성찬양대 특송,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의 설교가 있는 후, 조용중 사무총장의 마무리 시간과 고인호 목사(KWMC 전임의장)가 축도, 이승중 대표의장이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번 한인선교대회 기간 동안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첫날 개최예배 후에 열린 주제발표는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사회로 열렸으며 김 앤드류 선교사(남반주)와 조용중 선교사가 발제했다. 둘째날 오전 이근희 선교사(캄보디아) 사회로 시작된 주제강의는 김혜구 박사(UN식량기구)와 배안호 선교사(영국)가 강의했다. 셋째 날 주제강의는 백운영 선교사(말레이시아) 사회로 시작,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선교적 영성’, 조수에 니켈 선교사가 모슬렘 선교, EF Tendero(WEA대사)가 ‘Global Collaboration for World Mission’, 고정민 장로(복음의 전함)가 ‘세상을 향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또한 성경강해 시간을 가졌는데 둘째날 오전에 송상전 선교사(러시아) 사회, 양성일 목사(십자가의교회) 강의, 셋째 날에는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 사회, 더글라스 패트릭 교수(Brookes Bibe College) 강의, 넷째 날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 사회, 진재혁 선교사(케냐) 강의했다. 그리고 선교대회 중 선교대담 시간이 있었는데 둘째날 조용중 선교사 사회, 강대홍 선교사(KWMA사무총장)와 방도호 선교사(KWMA사무총장)의 대담이 있었다. 또한 간증시간도 마련이 되어 둘째 날 지선 전도사, 셋째 날 공민 선교사(일본)가 간증했다. 이외에 영역 모임, 전례강의, 선택강의가 둘째날과 셋째날에 있었으며 마지막날 영역모임 결과 발표, 대회의료, 그리고 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박준호 기자)

### 테너 오위영 목사 콘서트 성황리에 열려



테너 오위영 목사 콘서트 출연자들이 공연을 마친 후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성악가 테너 오위영 목사의 콘서트가 ‘평화를 위한 기

도라는 주제로 6월30일(주일) 오후 6시 지포 콘서트홀에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주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테너 오위영 목사가 오페라 ‘페도라’의 아리아 ‘참을 수 없는 사랑’, 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 ‘향수’, 성가곡 ‘하나님의 은혜’, ‘The Lord is my light’ 등을 윤인상 목사가 지휘하는 라크마(LAKMA)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불렀다. 또한 바리톤 벤 로우, 한국에서 온 소프라노 김민지씨가 찬조 출연하여 이날 콘서트를 빛내주었다. 이날 콘서트는 출연자들이 ‘그리운 금강산’과 앵콜곡 ‘축배의 노래’를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창단35주년 샌프란시스코 마스터코랄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 창단35주년 샌프란시스코 마스터코랄 정기연주회 열려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갈 것”

북가주 베이징의 대표적 한인 합창단인 샌프란시스코 마스터 코랄(단장 정지선, 이사장 안현수)은 지난 6월 29일 산마테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창단 35주년을 기념하는 정기연주회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창단 취지에 맞춘 다양한 성가곡과 현대 창작 가곡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은 현대성가 ‘임하소

서’, ‘오직 성령이’, ‘찬양의 삶’ 등 우렁찬 교회 성가곡과 독주 악기와 합창단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성가합창곡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마스터 코랄은 현대 창작 가곡을 꾸준히 발굴해 온 김현 지휘자의 편곡으로 한국 가곡과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인 ‘농부가’, 경기도 민요인 ‘한강수 타령’을 무대에 올렸다. 2부 연주회의 메인곡으로는 프랑스 작곡가 드보야의 대표

곡인 오라토리오 ‘십자가상의 집안’을 연주했다. 이 곡은 기독교 고난주간인 성금요일 연주를 위해 1867년 작곡된 작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남긴 일곱 마디의 말씀을 아름답게 표현한 클래식 음악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이번 연주회는 김현 지휘자가 음악 감독으로 지도하는 실리콘밸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베이징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한국문화원 우리사위(대표 고미숙)를 초청하여 전통적인 한국문화공연도 함께 선보였다.

정지선 단장은 “합창단과 단원들의 사랑과 지원이 계속되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공연을 위해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마스터 코랄은 창단 35주년을 맞아 이번 연주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 동부교계 기사관

## 퀸즈장로교회, 캄보디아 벨엘국제학교 및 그레이스채플 완공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7월 20일(토) 오전 7시(동부시간) 퀸즈장로교회 본당과 캄보디아 벨엘 센터에서 캄보디아 벨엘국제학교 및 그레이스채플 완공예배를 드린다.

▲ 문의: 718-886-4040

## 주사랑장로교회, F.I.A 찬양집회 (피아워십)

주사랑장로교회(담임 최성현 목사)는 7월 18일(목) 저녁 7시 30분 F.I.A 찬양집회를 개최한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간단한 저녁식사도 준비된다.

▲ 문의: 718-229-8855

## ACE, “지노 박” 초청 힐링 콘서트

다음세대를 섬기는 ACE(Adullam Community in the Endtime 장규준 목사)는 7월 21일(주일) 오후 5시 뉴욕 만나교회(담임 정상철 목사)에서 차세대 리더십 캠프 &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지노 박” 초청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재즈 피아니스트 지노 박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하여 온 세대 가족들이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 문의: 347-654-6813, 646-266-0039

## 뉴저지초대교회, 2024 초대 찬양학교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7월 13일(토)부터 14일(주일)까지 교육관(MPR)에서 “Yes, Lifelong Praise!(시 146:1-2)”를 주제로 이삼열 교수(장신대 음악과 교수, Yamaha 공식 Endorser)를 초청하여 2024 초대 찬양학교를 개최한다. 대상은 찬양사역에 관심있는 자이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최창환 집사 310-709-2126



퀸즈장로교회 2024 전교인수련회 단체 사진

## 퀸즈장로교회, 2024 전교인 수련회

### 윤영민 목사, “건강한교회, 건강한성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024 전교인여름수련회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주제로 7월 4일(목), 6일(토), 7일(주일)에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 강사는 현재 서울 대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시무 중이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인 윤영민 목사.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목) 오전 10시 부터 교회예배로 시작된 이번 수련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살전 1:7-8)”라는 주제 아래 “깃발 날리는 인생(출 17:8-16)”, “행복이 아니라 거룩(레 19:1-2)”, “쓰임 받는 그릇(딤후 2:20-21)”, “축복의 통로(창 12:1-3)”, “소문이 좋은 교회(살전 1:7-8)”, “하늘 문이 열린 교회(계 3:7-13)”, “아프니까 교회다(요 5:1-9)”의 제목으로 총 7번의 말씀을 전했다. 윤영민 목사는 “아말렉과 같은 혈기

를 가져서는 안되며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서로를 품어 주며 아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말씀을 통해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교회 성장의 비결 및 건강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 나눴다.

이번 수련회의 프로그램으로 “JESUS” 영화 관람, 건강 산책, 한의사 임지훈 목사의 인도로 건강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체육대회(족구, 탁구) 및 킨장 여름축제(장기자랑)를 통해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되는 유쾌한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주일 저녁 전교인 BBQ 저녁 식사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온죽(溫竹) 황상하 목사, 은퇴감사예배 후 기념 촬영

## 온죽(溫竹) 황상하 목사, 은퇴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퀸즈제일교회(담임 황상하 목사)는 6월 30일(주일) 오후 5시 본교회에서 퀸즈제일교회 성도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동노회 주관으로 황상하 목사의 은퇴감사예배를 드렸다.

황상하 목사는 흠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카운터하십니다. 은퇴 후 이 숙제를 풀어야 할 미션으로 여겨지며, 거짓과 위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가자”고 답사했다.

노회장 허민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장가수 목사, 설교 이길호 목사, 특송 뉴욕동노회 중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길호 목사는 베드로후서 3:8-14 본문 말씀으로 “매

순간 종말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지표를 체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이 결산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황 목사의 목회 사역의 칭찬과 상급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큰 칭찬과 영광이 될 줄 믿는다”고 설교했다.

이어 김남수 목사와 조문휘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남수 목사는 ‘황 목사의 일관된 신앙과 신학을 감사하며 은퇴를 축하했고, 조문휘 목사는 ‘강직함과 따뜻한 섬김’을 강조하며 “은퇴 후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날은 특히 ‘내가 아는 황상하’라는 주제로 정관호 목사, 이종철 대표, 황문영 목사의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44년 지기 친구이자 동역자인 정관호 목사는 정의감, 지성을 가진 목회자이자 사상이라고 표현했고, 이종철 대표(아멘넷)는 20년 동안 아멘넷 필진으로 섬긴 황상하 목사를 글 쓰는 슈퍼맨이라고 칭했다. 동생 황문영 목사는 “인간 황상하는 아직도 연구대상”이라고 말하며 “말 잘하는 신동이자 살아있는 전설, 희생적인 열정, 새로움을 추구하는 청년, 따뜻한 큰 바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인들과 뉴욕동노회에서 기념패 및 선물을 증정하며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모든 순서는 조영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배영만 선교사 간증집회 후 사진 촬영했다

##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배영만 선교사 간증집회

“40년 광야를 거친 모세처럼.....”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회장 이병홍 목사)는 7월 7일(주일) 오후 5시 뉴욕베데스다 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배영만 선교사 초청 간증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모아진 선교 비는 한국 파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박윤근 목사)의 장애인 사역과 캄보디아 고아원(강은영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사용된다.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회장 이병홍 목사는 “국제사랑재단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유럽과 로마에 복음을 전했다듯이, 고 김기수 목사님도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2004년 국제사랑재단을 설립하였고, 세계 곳곳에 선교와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소개하며 “오늘 배영만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 한국의 장애인들과 캄보디아 고아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박시훈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간증집회는 경배와찬양 아

사, 헌금송 뉴욕팬플룻선교찬양팀, 헌금기도 이철희 목사, 축도 김원기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배영만 선교사는 ‘복 있는 자(시편 1:1-2)’란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저를 연단시키며 40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를 거친 모세처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는 계획을 깨달았다. 20년 전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목사가 되지 않으려 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로 40년 만에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우리는 복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후원문은 917-224-2000(이병홍 목사) 또는 917-992-5200(박시훈 목사)로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친목야외예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 뉴저지동산교회 설립 39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순종의 임직자들이 되자”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는 설립 39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를 7월 7일(주일) 오후 5시에 드리고 5명의 교회일꾼들을 세웠다.

1부 예배 인도 윤명호 목사, 대표 기도 박순탁 목사(섬기는교회), 동산연합찬양대의 찬양, 설교 강남수 목사(뉴저지만나교회), 봉헌기도 김신울 목사(농승교회), 39주년 동산교회사 동영상 상영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남수 목사는 “순종의 사람(민수기 34:16-19)”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3명의



설립 감사 및 임직 예배 중 기념 촬영

핵심 인물, 모세 여호수아 갈렘’을 소개했다. “하나님께 헌신했으나 여호수아와 달리 내려 앉았지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모세와 갈렘을 닮아 순종의 임직자들이 되라”고 부탁했다.

2부 임직식을 통해 장로장립 2인(권오근, 김원겸)과 권사임직 3인(권영미, 이정윤, 정

## 뉴욕목사회, 제52회기 친목야외예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자!”

뉴욕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 친목야외예배가 7월 2일(화) 오전 11시 커닝햄 파크에서 열려 회원 목사 부부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목사회는 지난 5월에 뉴욕에서 열린 5개주 체육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과 모든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야외회를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목사회는 같은 시기에 야외회 대신에 랜커스터 뮤지컬 모세 관람을 했다.

앞서 드려진 예배는 인도 총무 한필상 목사, 기도 전희수 목사, 성경봉독 부총무 하정민 목사, 설교 뉴욕청소년센터 대표 최호섭 목사, 광고 서기 김정길 목사, 축도 황상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섭 목사는 “이번만(삿 16:23-31)”이라

는 설교를 통해 “사단이 목회자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교회에 많은 손실이 있고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 기도를 통해 목사가 바로 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는다. 정말 죽고자 하는 결단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회장 정관호 목사는 “우리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모든 회원 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했다. 5개주 체육대회를 위해 후원받고 남은 재정을 뉴욕청소년센터에 전달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 피종진 목사 7월 부흥성회

- 순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240차 해외성회(240th Overseas Assembly)

1(월) 오전 미국(USA) 아틀란타 공항 도착  
1(월)~3(수) 미국(USA) 아틀란타 2024 NYSKC FAMILY Conference  
주최: NYSKC WORLD MISSION 총재 피종진 목사(서울), 대표회장 최고성 목사(뉴욕), 실무회장 이병환 목사(워싱턴DC) 동남부부장 남경진 목사(아틀란타), 준비위원장 강효열 목사(아틀란타), 대회장 김은목 목사(사), 학회회장 황도모 목사(카나다), 모토회장 GTS 교수 전영수 목사(앨라배마), 학생회장 이용희 목사(카나다), 몬트리올, 학회장 최기성 목사(뉴욕), 동남부부장 손기성 목사(워싱턴DC), 남부부장 김영달 목사(앨라배마), 선교사 손일선 목사(아틀란타)  
장소: 아틀란타 서양장로교회(강효열 목사)

4(목) 미국(USA) 독립기념일 행사  
5(금) 미국(USA) Atlanta Prayer Center 성회 (아틀란타 우리기도원, 원장 신사명 목사) 4088 Sardis Church Red Buford GA 1-405-777-0090  
6(토) 미국(USA) UKPC 동남부노회(노회장 김영연 목사) 교역자세미나 1-404-642-4233  
7(주) 미국(USA) 1부 오전시, 2부 오전11시 Duluth 주성교회(김영복 목사) 1-404-648-4233  
1795 old peach tree Rd RD, NW Duluth GA 20097  
인천공항 도착

9(화) 저녁 서울 Training Center Revival  
10(수) 오후 황교안 비전캠프(김사명 목사) 010-3621-3383  
11(목) 저녁 천보산 기도원 (원장 옥광성 목사) 주최: 국제예수교회(대표회장 임영술 목사) 010-9013-0693 (사무처장 임태영 목사) 010-6713-0388  
12(금) 오전 안산 큰기쁨교회(김은희 목사) 주최: 열방선교회총재 김명희 목사, 대표회장 김은희 목사 010-7291-0291  
13(토) K. Special Event Blessing  
15(월)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한주) 주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주)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010-5603-4997  
16(화) 오후 한일산기도원 (원장 이영준 목사) 주최: 글로벌총회(대표총재 피종진, 대표회장 정영준 목사) 010-2296-0675  
17(수) 저녁 서울 임마누엘교회 (최옥순 목사) 010-2213-4448  
18(목)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김사명 목사) 010-8331-3431  
19(금) 저녁 서울 영림교회 (김희중 목사) 010-8633-0190  
20(토) 저녁 파주 말린교회 (임은경 목사) 010-2473-8023  
21(일) 저녁 부천 천성교회 (이항연 목사) 010-9020-8893  
22(화) 오후 인천 새빛교회 (우용석 목사) 010-9264-9843  
23(수) 오후 한일산기도원 (원장 이영준 목사) 010-7404-8541  
24(목) 오전 주회: 글로벌총회(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010-2296-0675  
25(목) 오후 구리 성안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주최: 지선협 나라사랑 기도성회  
26(금) 오후 영리야기도원 (서재은 목사) 010-7142-2547  
27(토)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한주) 주최: World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28(일) 오후 진인 임마누엘 성안교회 (원장 이영준 목사) 010-8623-6391 박복주 부목사 010-4132-119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0(동로) Tel. 02)4011-9191 Fax. 02)4011-9190



# 이상명 총장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출판기념회

## "바울 신학을 유대교 배경에서 이해하려는 연구와는 결이 다른 시도"

미주장신대학교 총장 이상명 박사의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출판기념회가 6월28일(금) 오후 3시 미주장신대학교 멀티룸에서 열렸다. 강정자 교수(교무처장) 사회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이상명 총장은 "바울서신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상황성이 반영되어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이며 2천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이다. 그 상황 속에서 천상과 지상에서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했고 4막으로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바울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구원인데, 특히 바울 신학의 난제라 할 수 있는 바울의 율법관과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레코-로마의 두 단계 파이데이아(paideia)로 해석하는 모형을 감행했다"라며 "도라(율법)와 로고스/소피아인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헬레니즘의 예비 교육(encyclical paideia)과 그것의 추구로서의 지혜에 대입하여 풀이했다. 이는 구약성서와 신구약중간기 지혜문학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면면히 내려오는 사상사적 전통에 기대어 바울의 신학 사상을 반추하는 시도였다. 바울의 율법관을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새관점 학파'에 반대하여 나는 바울의 율법관은 상당한 일관성



이상명 총장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이 있음은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헬레니즘의 두 단계 파이데이아(교육이라는 의미)나 보다 크고 다양한 의미를 함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서로 구분되나 연속적인 바울의 파이데이아가 드러난다"며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 등장하는 적대자들의 다양한 공격에 대한 바울의 입장(대응)도 서신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주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우주론과 인간론을 두 축으로 하여 호메로스의 서사시, 그레코-로마 종교 및 철학 사상, 구약성서와 신구약중간기 묵시문학과 지혜문학을 거쳐 필론(Philo)으로 이어지는 유대-헬라적(신학)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바울의 신학

사상을 큰 구조물로 짓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바울 신학을 유대교 배경 안에서 이해하려

(박준호 기자)



최근 학교명칭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PU)로 변경한 미주장신대학교

## 미주장신대학교 학교명칭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로 변경

### 한국장로회신학대학교 평신도교육대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지난 봄 정기 이사회에서 본교 교명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에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이하 CPU)로 변경하게 된다. 이번 학교명의 변경은 지난 5월에 열린 제48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의 결의 사항에 의한 것이다. 이상명 총장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로 교명을 바꾼 것은 본교의 국제적 인지도와 명성을 높이고 다문화 다민족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에 따른 결정"이라며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라는 이름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고등 교육의 우수성과 프레스티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교육의 품질과 학문적인 엄격함을 강조한다. 글로벌 교육 기관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학교의 결단이 있다"고 말했다. 본교는 CPU로 학교명칭이 변경

되었지만 당분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와 CPU라는 교명을 병행하여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7일(목) 프라임 리더십 인스티튜트(Prime Leadership Institute, 대표: 이상명, 이사장 김재권)와 한국장로회신학대학교 평신도교육대학원(이사장: 최상현, 원장: 손달익)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21세기에 맞는 평신도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공동연구, 평신도 교육과정 중 시니어 사역자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관계 구축, 평신도 교육 전문가 교류 및 자문, 평신도 시니어 사역 분야 전문 도서 공동 출판, 고령화 사회 및 다문화 환경에서 사역할 평신도 리더십 공동 개발 등의 분야를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준호 기자)



책 소개를 하고 있는 저자 박준호 박사

## 북콘서트-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그리고 교회'

### "급변하는 세상,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본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호 박사의 저서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그리고 교회'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6월29일 오후 5시 LA 기쁨의 교회(담임 이희문 목사)에서 개최됐다. 찬양사역자 캐서린 조 사회와 이성자 전도사(본지 LA 지사장)의 기도로 시작된 북콘서트에서 오프닝송을 선사한 랜디김 밴드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비롯한 찬송 3곡을 힘차고 은혜롭게 들려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이민우, 소프라노 김미경, 테너 오위영 등의 찬양사역자로 활동 중인 뮤지션들의 공연으로 한층 분위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한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학교), 다니엘 뉴먼 박사(아주사피사피대학교), 박시경 박사(그레이스신학교)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이어 책 소개로 단에 오른 박준호 박사는 책자가 출판되기까지의 이야기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현재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는 자율주행차, UAM, 메타버스, AI기술들을 접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그는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지난 202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였다"며 "당시 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 생활을 하던 중 접하게 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책과 각종 자료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자료들을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급변해가는 세상 속에 살게 될 터인데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서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충분히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사용하여 사역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예를 들면 로봇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어주고 서빙을 해주는 로봇이 있는데 장애인인 원격으로 조종을 한다. 이를 카페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장애인 성도들에게 이 사역을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그들의 생계를 위해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모습을 터미네이터나 어벤저스에 나왔던 인간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나타난 AI 울트론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기술력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다가올 4차산업의 산물들을 충분히 사역으로 접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책 소개를 들은 참석자들은 "현 시대에 맞는 귀한 책자"라고 치하하며 "후속편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 한미연합회 '2024 전국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 성황리에 열려



2024 NCLC collage Photo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동안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2024 전국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National College Leadership Conference, 이하 NCLC)'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컨퍼런스는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5년 만에 재개되

어 18명의 한인 2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언론, 법조계, 의학계 등 20여 명의 미주류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지도자들 및 전문가들이 멘토링, 강연, 토론과 네트워킹을 통해 학문적, 전문적 조언과 자원들을 제공하고 차세대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 서부교계 게시판

###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목회코칭 온라인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이 주최하는 '목회 코칭 온라인 세미나'가 제1차는 오는 19일(금) 오후 3시부터 4:30분까지(미서부시간), 제2차 세미나는 26일(금) 오후 3시부터 4:40분까지(서부시간) 열린다. 1차 세미나에선 목회커뮤니케이션 이해, 효과적인 코칭 대화법 적용을 주제로 열리며 2차 세미나는 목회코칭의 적용사례 및 워킹, 강점코칭, 코칭 리더십 활용을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월드미션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더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윤재병 목사. 윤 목사는 전 이랜드그룹 사목, 동서선교 연구 개발원 코치, 국제 PCC 코치, 미국캘리포니아주인증코치, 온누리교회, 가정교회사역원등 다수의 목회자 목회 코칭을 해 오고 있다. 참가비 무료. 신청등록은 학교 홈페이지(kr.wmu.edu/)의 목회코칭 세미나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 문의: (213)388-1000

### 제2회 평강 블레스 콘서트 "한 여름 밤도 주님을 찬양해"

평강교회(담임 송금관 목사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는 제2회 평강 블레스 콘서트를 "한 여름 밤도 주님을 찬양해"라는 주제로 13일(토) 오후 5시에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한 여름밤의 분위기를 식혀줄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차 예정임이다. 찬양사역자 정종원 목사, 이은수 목사, 안용대 목사를 비롯해, 소프라노 김현주와 이영희, 베이스 김성현이 출연한다. 또한 피아노 트리오 나경희, 바이올리니스트 황여주, 첼리스트 장성희가 함께 연주하며, Joy 여성합창단(단장 김보강, 지휘 이영희, 반주 나경희)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줄 것이다. ▲ 문의: (213)393-9136, (626)639-6007

### 세리토스장로교회 여름 심령 부흥집회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는 여름 심령 부흥집회를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심자기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안일권 목사(세계침사가선교회)이며 일정은 12일(금) 오후 7시30분, 13일(토) 새벽 6시, 오후 7시, 14일(주일) 1,2,3부 주일예배 ▲ 문의: (562)677-7777

### 목회와 선교를 위한 AI 활용 강의 2기 모집

목회와 선교를 위한 AI 활용 2기 강의가 7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6-9시 10주간 진행된다. 강의는 현장 및 Zoom Syn 강의로 현장 및 Zoom Syn 강의로 진행되며 녹화 강의도 제공된다. 수강료는 300불. 강의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YouTube 다국어 Subtitle 및 AI 활용한 다국어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본 강의의 강사는 제임스 구 교수(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와 그레이스글로벌비즈니스쿨 대표). ▲ 문의: (949)667-0264, (714)393-4595

### 동양선교교회 창립 54주년 기념부흥회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창립 54주년 기념부흥회가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김동호 목사(전 높은뜻 연합선교회 대표)이며 부흥회 일정은 12일(금) 오후 7시, 13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14일(주일) 1부, 2-3부 연합예배 ▲ 문의: (323)466-1234

### 포틀랜드영락교회 창립 60주년 부흥성회

포틀랜드영락교회(담임 박성하 목사) 창립 60주년 부흥성회가 '공동체 회복'이라는 주제로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부흥성회의 강사는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이며 일정은 12일(금) 저녁 7시30분, 13일(토) 오후 4시, 14일(주일) 오전 11시이다. ▲ 문의: (503)531-8444

### 캄보디아 후원 예수마을 찬양선교음악회

캄보디아 후원 예수마을 찬양선교음악회가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13일(토) 오후 6시에 개최된다. ▲ 문의: (714)521-0991

를 위한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주제로 AAPI 얼라이언스 캔디스 조(Candice Cho)정책 디렉터와의 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또 다큐멘터리 영화 "이철수에게 자유를(Free Chol Soo Lee)"의 공동 감독인 줄리 하(Julie Ha)와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대담, 임상심리학자인 리디아 김(Lydia Kim)박사와 정신건강과 소풍에 대한 중요성을 짚어보는 세션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고찰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자아관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진로 선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리더십 컨퍼런스는 한미연합회, 김용환 장학 재단,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해외동포청, 오픈뱅크, McDermott Will & Emery 법률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Kim & Lee 회계법인, 한미연합회 전국 부이사장을 지낸 그레이스 김 등이 후원하였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한국장로교회 한자리 모여

서울 남서울교회서 ‘제16회 한국장로교의 날’ 대회 개최

국내 26개 장로교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시대 속 한국장로교회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천환 목사)가 9일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교회(최성은 목사)에서 ‘제16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개최했다. 주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였다. 대회에는 한장총 26개 회원 교단 총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장로교회의 연합에 전심전력하며, 하나의 거룩한 교회로서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제16회 한국장로교의 날 남서울 선언문’을 발표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교회는 항상 세상의 도전을 받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셨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다”며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나부터’, ‘날마다’의 개혁을 실천해 장로교인의 명예와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천환 대표회장은 대회사에서 “한국교회는 세속화와 탈종교화의 심각한 도전과 교세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복음의 진정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회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권면했다. 이어 “교회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와 개혁의 힘을 발휘했다”며 “실수된 교회의 권위와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가 되어 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공의를 실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예배는 한장총 상임회장 권순웅 목사가 사회를 보고, 이성희 연동교회 원로목사가 설교했다. 이 원로목사는 “교회는 모름지기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을 앞서지 말며 날마다 거룩하게 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나라에 낙오 없이 들어가는 교회가 다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순례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인도에 따라 장로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공공성 강화, 다음세대, 평화·통일을 주제로 함께 기도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교육·신학 부문을, 하재호 주바라기선교회 목사가 선교·문화부문을, 서일권 제5영도교회 장로가 복지 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 돼 찬양하라”

부산 목사찬양대 ‘파노플리아콰이어’ 창단 감사예배

목사는 예배 인도자로 설교뿐만 아니라 찬송을 지도하는 일이 직무에 포함돼 있다. 목사가 찬양을 배움으로써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 목사들이 함께 모여 찬양함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위로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

부산지역 목사들로 구성된 찬양대 ‘파노플리아콰이어’(단장 김영완 목사)가 창단 감사예배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 창단 감사예배는 8일 부산 연제구 서문교회(박원주 목사)에

서 열렸다. 부산지역 목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대하게 치러졌다.

감사예배는 오전 11시 김영완 단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병수 운영위원장이 대표기도 드렸고, 찬양대 고문 안용은 부산 온천교회 원로목사가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히13:15)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안목사는 “영적인 침도 얻고 찬양지도도 하고 교회연합에 모범이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임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로 인해 찬송받고 영광받기 위해서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것이며 존귀하고 영화롭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목사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찬양대가 되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전신갑주(파노플리아)를 입는 찬양대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파노플리아콰이어의 단장 김영완 목사는 “지난 부활절연합예배때 목사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된 계기로 상임지휘자인 김현진 새로운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뜻을 세워 찬양대를 결성하게 됐다. 월 1회 서문교회에 모여 교제와 연습을 통해 연합말씀 연주회도 가질 예정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니 서로 섬기면서 위로받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창단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파노플리아콰이어는 부산지역 내 다양한 교회와 행사에 찬양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음악을 통한 선교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새벽기도는 장년 전유물?... 청년들이 무릎 꿇었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의 기도 열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새벽에 눈을 뜨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8일 오전 6시 20분 서울 용산구 청암교회(이정현 목사)에 모인 청년들이 성경도 우이중앙교회 목사의 메시지를 따라 하나둘 강대상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의 기도 열기는 40분 넘도록 뜨겁게 이어졌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기도 소리는 눈물이 더해졌다. 교회에서는 이날부터 닷새 동안 ‘믿음의 스토리’라는 주제로 청년 특별새벽기도회(청년 특새)가 진행된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른 시간 기도의 자리로 온 이들은 저마다 기도로 믿음의 이야기를 쓰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청암교회 청년부찬양팀 싱어를 맡은 최희진(25)씨는 “새벽은 저녁 집회와 달리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참석 인원도 적은 편이어서 각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 더 커진다”면서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힘보다 주님께 의지하니 새벽 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감동을 전했다.

두 살 된 아들과 함께 특새에 온 최은지(34)씨는 “새벽부터 아이를 깨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기도 열기를 현장에서 느끼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면서 “지난해 시작한 청년 특새에서 기도에 대한 청년들의 간절함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청년 집회를 새벽에 한다고 했을 때 직장도 학교에 가야 하는

데 누가 올라 의구심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기도 열기를 보면 새 아침이 밝아온 듯 기쁨이 넘는다”고 응원했다. 청년 새벽기도회는 장년들의 영역으로 분류되던 전통적 새벽기도회에서 벗어나 젊은 감각의 강사진과 CCM 중심의 찬양으로 젊은이들을 매혹하고 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젊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청년 새벽기도회를 여는 이유다.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송태근 목사)도 지난달 3일부터 3주 동안 ‘제52차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했다. 이 기간 청년들이 중심이 돼 기도회 특송을 불러 은혜를 더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주경훈 목사)도 ‘청년국 특별기도회’를 진행했다.

6일 오후 4시 대전 동구 대전역 동광장 일대에서 합창 구호가 울려 퍼졌다.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대표 정세운) 등 70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 등 50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외침이었다. 이 행사는 대전에서 처음 열리는 동성애(퀴어) 행사에 반대하는 ‘건강한 가족 시민대회’였다. 시민대회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소재동 일원에서는 퀴어행사가 강행됐다. 시민대회는 퀴어행사의 ‘맞불 집회’ 격으로 기독교계 등이 뜻을 모아 기획·개최된 것이다.

대회 주최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반사회적, 반민주적인 성혁명 교육과 공공장소 퀴어행사, 청소년 마약 중독, 가짜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한다”

우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평소 새벽기도회에서 만날 수 없던 청년들을 본 선배 교인들의 반가움도 적지 않았다. 김순옥(76) 권사는 “청년들은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기둥”이라며 “이른 시간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모습이 기특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며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청년 새벽기도회는 장년들의 영역으로 분류되던 전통적 새벽기도회에서 벗어나 젊은 감각의 강사진과 CCM 중심의 찬양으로 젊은이들을 매혹하고 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젊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청년 새벽기도회를 여는 이유다.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송태근 목사)도 지난달 3일부터 3주 동안 ‘제52차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했다. 이 기간 청년들이 중심이 돼 기도회 특송을 불러 은혜를 더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주경훈 목사)도 ‘청년국 특별기도회’를 진행했다.



### “요셉과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나라와 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특별연합기도회

“평소 마커스정기예배에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기도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대문구청에서 청소년을 위한 연합기도회 자리가 열린다길래 다 함께 시간을 내서 와봤어요.” 자신을 대광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소개한 김예준(16)씨는 이렇게 말하며 친구 배서현(16), 왕준(16)씨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동대문구청기독교교회(회장 정은숙)와 동대문구교구협의회가 지난 8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주최한 ‘나라와 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특별연합기도회’ 현장이다.

연합기도회는 지난해 9월 처음 시작됐다.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동대문구청기독교교회와 지역교회 연합체인 동대문구교구협의회와 함께 매일 한 번씩 나라와 지역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기도회는 특별히 방학 시즌을 맞이해 구내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초청됐다. 이날 참석한 다음세대 20여명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다.

설교에 나선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는 ‘이 시대의 요셉을 찾으시는 하나님!’(창 39:7-10)을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박

정은숙 동대문구청기독교교회 회장은 “우리는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빛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합해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특별연합기도회를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교회와 나라가 선하게 바뀔 줄로 믿는다. 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의 소감이 공명했다. 배서현(16)씨는 “다음세대의 일원으로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함께 깨어있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하게 됐다”며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도, 예배를 인도해주시는 분도 모두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목사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목회하기보다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어 하는 시대”라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이들이 칼을 들면 요리가 되고,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숙 동대문구청기독교교회 회장은 “우리는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빛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합해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특별연합기도회를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교회와 나라가 선하게 바뀔 줄로 믿는다. 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의 소감이 공명했다. 배서현(16)씨는 “다음세대의 일원으로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함께 깨어있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하게 됐다”며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도, 예배를 인도해주시는 분도 모두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 대전 첫 퀴어행사 맞서 시민 5000명 반대 집회

“동성애 퀴어행사 반대한다.”

다”며 “선량한 성윤리를 지키고 건강한 대전과 건강한 가정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다양했다. 대학생 김강민

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대회 참가자들은 10대

가 울바름을 세우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장인 심상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보면 국가와 시대는 가차없이 혼돈이 발생할 때 종언을 고한다고 할 수 있다”며 “동성애는 병든 시대를 진단하는 잣대다. 이에 기반한 퀴어행사를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선 전문가 등이 나서 퀴어행사의 부당성과 성혁명 실태를 고발했다.

이행우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선 유해 도서들을 통해 잘못된 성교육이 행해진다. 이걸 다양성이라고 포장한다”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즉시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퀴어단체가 내세우는 ‘인권’ 개념을 정조준했다. 김 대표는 “본래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기본 권리’인데 오늘날의 인권은 약자 또는 소수자라는 이유로 특정집단

중심의 인권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의적 상대적 인권은 결국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이기적 존재로 만들거나 사회에 갈등만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탈동성애자인 박진권(39)씨의 간증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15년 넘게 동성애자로 살다가 벗어난 계기 등을 진술하게 고백했다. 박씨는 “한번 경험한 동성애는 멈출 줄 모르고 저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회고했다. 이어 “어느날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며 “그때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했다. 이후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 말미엔 특별기도회에 이어 대전역에서 서대전네거리까지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퀴어행사 주최 측과의 충돌은 없었다.



대전 첫 퀴어행사 맞서 시민 5000명 반대 집회

“동성애 퀴어행사 반대한다.”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58)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연합의 정신과 협력의 대 광장 KWMC 선교 대회

제10차한인세계선교대회가 7월8일부터 11일까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 했습니다.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1988년 첫번째 대회 이후 36년 동안 매 4년 마다 열리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한인교회 연합의 대광장입니다. 500여명의 선교사들이 70여 나라에서 함께 모이고, 목회자, 평신도,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3박 4일 동안 연합과 축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한인선교사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었고, 미주 한인교회들과 동역의 관계를 시작하게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는 세계선교에 대한 눈을 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여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을 만나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단기 선교의 길들이 열렸습니다. 아메리칸드림이 킴덤드림으로 바뀌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이민 1세대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어렵게 일구었던 사업을 접거나, 직장을 조기 은퇴하고, 선교지로 나간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미주전역의 한인들이 함께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의 목회자들이 교단 벽을 넘어 함께 세계선교를 위해 울부짖으며 한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비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탄 경비를 들여 모임을 가지는 것에 대한 비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짧은 생각입니다. 연합은 성경의 명령이며 복음 전파를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연합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연합운동의 목적은 다양한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닌,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연합운동을 통해 교회와 단체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합의 본질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한인선교사들은 나와 다름보다도 동질감을 더 발견하게 되었고, 각 국가마다 한인선교사회가 조직이 되고 다른 나라들의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지역모임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 자기 개인적인 사역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체 나라를 보게되고 지역을 생각하고 세계선교의 한부분을 맡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연합은 성경적 명령입니다. 성경은 연합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명령하셨고 (요17:21),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4:3). 성경적 연합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땅히 하나 되어 선교의 일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여야 합니다. 연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이루어집니다. 연합운동을 통해 각 교회와 단체가 서로의 신앙 고백과 교리를 존중하면서도,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조직적 협력이 아닌, 신앙의 본질과 사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연합은 타협이 아니라, 복음의 강력한 증거와 전파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세계선교를 위해 서로의 다름이 아닌 공통성을 보게합니다. 선교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연합이 필요합니다. 연합운동을 통해 선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더 큰 성과를 위해 교회들이 협력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됩니다. 연합을 자원과 인력을 최적화하고, 중복된 노력을 줄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 사이에서 연합의 광장은 서로를 배우는 기회가 되며, 교회들은 구체적인 참여의 방법을 배우는 큰 유익이 됩니다.

공동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함으로 연합운동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와 단체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열정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수한 응답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배우기도 합니다. 새로운 변화들에 눈을 뜨게하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도전을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의 보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감격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자신의 삶에 변화의 결단을 가지게도 합니다.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합운동에 가져왔던 실수도 역사를 통해 배우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연합을 추구하였지만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 시대의 암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 세계는 예루살렘과 성지 회복을 위해 연합하여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유럽하여 이슬람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자원의 낭비,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 간의 뿌리깊은 적대감 조성, 현지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어 폭력과 억압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종교개혁 후의 종교 전쟁은 30년 동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세력 간의 갈등으로 유럽 전역의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 수많은 도시와 마을이 파괴되었으며,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지속되었습니다. 종교적 갈등이 국가적 전쟁으로 확대되

면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는 위그노 전쟁에서도 나타났으며, 인디언 전쟁과 미국의 서부 개척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잘못된 연합으로 인하여 일어난 폐해입니다. 이처럼 목적과 방법이 잘못된 연합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깊은 역사적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810년 에딘버러선교대회는 참으로 중요한 선교적 영향을 끼친 대회였지만 후에 에큐메니칼 운동의 장점 보다는 약점이 더 많이 들어나는 결과를 가져와 선교에 방해가 되는 연합운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연합을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연합이어야 합니다. 뜻이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합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경 말씀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확인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연합의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앙 고백과 교리에서 일치를 이루며 비분별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는 상호 존중과 겸손이 필수입니다. 연합하는 모든 교회와 단체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각자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넷째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투명하게 소통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 단체와 개인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연합의 원칙 아래 실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연합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이를 공유하고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네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첫째는 팬데믹 이후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선교운동의 재점화입니다. 둘째는 남가주지역을 중심으로 미주한인교회의 선교활성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포스트 팬데믹 창의적 선교전략을 모색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선교사 후보생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주춤거리던 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불이 붙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미주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의 선교운동 네트워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창의적인 선교의 방법들이 나누어 질 것입니다. 첫째는 점점 노령화되는 선교사원들을 이어갈 새로운 젊은 세대 선교자원 발굴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런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진행되는 선교대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원과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각 단체가 가진 자원(재정, 인력, 시설등)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회를 호스팅하는 남가주사랑의교회는 모든 시설과 자원봉사 인력으로 섬겼습니다. 대회를 위해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고, 대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대회를 통해 모여지는 선교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다른 세션에서 어떤 강자들이 진행될지도 알 수 있도록 자료들을 공유했습니다. 선교대회의 모든 진행을 실시간 스트리밍하여 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분들과도 공유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대회가 준비 되었습니다.

셋째는 연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임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참여자들의 의견을 나누고, 피드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선교대회의 3박4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엔 진

행된 18개의 전문영역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각 영역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확장되어 대회 이후에 더 많은 발전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합운동을 위해서 KWMC는 해마다 연차총회를 통해 네트워킹하고, 각 전문영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넷째는 교육과 훈련이 더욱 연합을 풍성하게 합니다. 연합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필요한 역량을 함께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각 단체의 리더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로는 단체의 리더들이 바뀔 때에 연합에 금이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서로를 위한 기도와 지원은 영적인 연합에 있어서 가장 강한 접착제입니다.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 연합을 강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파악하고 가능한 자원을 제공하여 상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가진 단체가 나서서 일을 주도하되 겸손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꿈꾸며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남가주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들에서 연합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가주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 오렌지카운티목회자회등 모든 연합단체들이 이 대회를 위해서 자주 만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논의하는 선교대회에 참여하여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단체들이, 지역의 교회들이 공동 선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공동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 각 단체의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연합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연합의 정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연합선교운동이 이번 제10차 KWMC 대회를 통해 일어나고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dr.yongcho@gmail.com

###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 (8)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 옥스퍼드 소크라테스 클럽

C. S. 루이스의 삶과 작품을 살피면 만나는 두 모임이 있다. 하나는 문학 토론 클럽인 잉클링스(Inklings)였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과 비신앙인의 공개 토론 모임이었던 소크라테스 클럽(The Oxford Socratic Club)이었다. 이 두 모임이 C. S. 루이스가 소모임에 능한 작가로, 혹은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 변증가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잉클링스는 매주 회원들이 글을 쓰고 쓴 글을 발표하면 동료들이 비평하는 문학 클럽이었다. 잉클링스(Inklings)는 루이스에게 읽혀지는 글을 쓰고 들려지는 이야기를 개발하는 문학가의 역량을 길러 주었다. 잉클링스는 루이스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작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 클럽은 기독교 교리 토론 클럽이었다. 소크라테스 클럽에서는 한주에 기독교인의 발제에 비신자가 답변하고, 다음 주에는 비신자의 발제에 기독교인이 답변하는 공개 토론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루이스가 사람들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문제의식을 파악하게 해 주었고 그 대답을 생각하게 했다. 소크라테스 클럽의 회장으로 13년을 보내며 C.S. 루이스는 변증가로서 기초를 다졌다. 비기독교도와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연습을 하고 논리를 준비하여 효과적 변증가로 성장하게 하였다.

소크라테스 클럽은 옥스퍼드 교목에 의해 시작되었다. 교목실에 막혀있던 스텔라 울드윅

클(Stella Aldwinckle)은 옥스퍼드 대학교 소머빌 여대(당시 옥스퍼드에는 5개의 여대가 있었다) 신입생, Monica Shorten으로부터 불평을 들었다. 모니카 쇼튼은 너무 상투적인 설교가 일방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었다.

모니카 쇼튼(Monica Shorten)은 비기독교인이나 불신자들이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존재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설교하는 것을 불평했다. 이는 지적 호기심이 많은 대학생에게 합당한 설교가 아니고 자신은 '이런 기독교 신앙의 전제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불평을 했다. 스텔라 울드윅 교목은 모니카 쇼튼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다른 친구들이 있는가? 물었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대답했다.

모니카 쇼튼의 얘기를 들으며 교목 스텔라 울드윅은 학생들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모임의 필요성을 느꼈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스텔라 울드윅은 "종교에 대한 철학적 접근(Philosophical Approach to Religion)"이란 모임의 공고문을 걸고 대학 내 모임을 주도했다.

1942년 1월 26일에 모였던

첫 모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고 분위기도 좋았다. 첫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만나자(Can't we meet again?)"라는 의견을 모았다. 반응에 고무된 스텔라 울드윅 교목은 두 번째 모임을 주선했고, 두 번째 모임도 성공적이었다.

두 번째 모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고무된 스텔라 울드윅 교목은 이 모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학교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학교에 정식 클럽으로 등록을 하고 C.S. 루이스를 찾아가 루이스에게 옥스퍼드 소크라테스 클럽 회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시작된 소크라테스 클럽에서 C.S. 루이스의 역할은 지도교수요 대표자였다.

루이스는 소크라테스 클럽의 회장직을 1941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수락했다. 루이스는 거의 모든 모임에 참석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을 발표하는 발제자로 가장 많이 발표했고, 비기독교인들의 기독교를 향한 질문에 답변자로도 가장 많이 나섰다. C.S. 루이스는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로 이동했던 1954년까지 소크라테스 클럽 회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소크라테스 클럽의 지도자였다면 클럽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교목 스텔라 울드윅이었다. 스텔라 울드윅이 소크라테스 클럽의 행정 실무와 프로그래밍 진행을 책임졌다. C.S. 루이스는 <소크라테스 클럽의 설립>이라는 글에서 스텔라 울드윅을 의장이라고 불렀다. 스텔라 울드윅이 주제를 정했고, 강사를 섭외했다. 스텔라 울드윅은 당대에 유명한 강사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명한 강사들을 섭외했다. 소크라테스 클럽이 그 당시 젊고 유능한 학자들의 대중 강의 실험 무대로 주목을 받았다.

소크라테스 클럽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15분부터 10시 30분까지 모였다. 한 번의 모임에는 보통 60명부터 100명 정도의 학생들(및 일부 연구원들)이 모이곤 했는데, 가장 많게는 250명까지 모인 적도 있었다. 그 날은 1944년 1월 24일로서 당시에는 무신론자였던 조드(C. E. M. Joad, 1891-1953)와 루이스 사이에 토론이 벌어지던 저녁이었다.

소크라테스 클럽은 학 여학생의 불평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대단히 성공적인 모임이었으며, 학부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오리엘(Oriel) 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

쳤던 그렌스테드 (Grensted) 교수는 '소크라테스 클럽은 전쟁 기간에 옥스퍼드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소크라테스 클럽에 대하여 비슷한 평가를 했다. 소크라테스 클럽은 27년간 총 414회가 모였고 강사 306명이 등장했다.

이 모임을 소크라테스 클럽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이 공개 토론이 소크라테스 토론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토론 원칙 핵심은 적극적인 청취(active listening)다. 확정된 결론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고 자제히 듣고 토론이 내리는 결론을 수용한다. 이런 토론 정신 매주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들어 열린 토론을 벌이게 하였다.

이 소크라테스의 토론 원칙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C.S. 루이스다. 울드윅 교목은 루이스를 회고하기를 "그는 독단적(Dogmatic)이지도 않았고 지배적(Domineering)이지도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었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하여도 적대적이 아닌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논쟁했다."라고 회고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진리를 찾는 데 집중한 루이스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Kangtg1207@gmail.com



#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 월 하나님 아들의 맛 (눅 14:33-35) 찬 280장

자신의 것을 누리지 말고 주인의 것을 누리고 사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헛된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영원한 곳에 가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내버려진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게 지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아무데도 쓸 데 없는 존재다. 열매를 맺

지 않는 나무는 찍어 내버리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주인에게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맛이 없는 소금은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 아들의 맛은 주님이 나타나심이다. 그 맛이 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 화 탕자의 회복 (눅 15:11-31) 찬 278장

탕자는 육신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따라 누리며 사랑한 것이다. 그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껏 즐긴 결과 불행한 자가 된다. 비로소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된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닌 것을 안 것이다. 육신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대적임을 나타낸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망에 매임이 되는 것을 안다. 그런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있다.

회복이 되어 진다. 자신의 생각 안에서 생각하기를 아들이 아닌 종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을 만나고, 구원을 만난다. 자신의 구원이 아버지인 것을 안다. 아버지의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다.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시는 넘치는 사랑이 있었고 받는 것이다.

## 수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눅 16:13-15) 찬 446장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살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라. 주인이시다. 헛된 수고가 아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지 말라. 그것은 죄가 주는 사상에 빠진 죄를 섬기게 하는 것이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장차 영광을 받게 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자신을 섬기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산 것이다. 부끄러운 삶이다.

## 목 용서하는 권세 (눅 17:3-4) 찬 542장

육신에서는 용서함이 나타나지 않고 복수로 나타난다. 그로 인해 나 자신도 죄에 매이게 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랑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 하신다. 죄는 내게 불행을 주는 것뿐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복수하고자 하는 사랑의 생각을 계속하여 버리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누렸다. 요셉이 죄에 매이지 않았던 것

이다. 죄가 그를 사로잡지 못했다. 왕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용하라. 용서하지 않게 하는 사랑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 종으로 살지 말라. 나의 주인이 주신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며 주님의 것을 누리라. 생명을 누리라. 빛을 누리라.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이 된다.

## 금 나병환자의 믿음 (눅 17:11-19) 찬 259장

나병 환자 열 명이 마음을 받았다. 그 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린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언급하신다. 나병에서 마음을 받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고치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자기 몸이 나을 받은 기적보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일 하심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탄한 것이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

께 큰 소리로 외치며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아홉 사람은 몸이 구원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그 영혼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몸 보다 그 영혼의 구원이 더 귀한 것이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 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 (눅 18:9-14) 찬 271장

육신 안에서 볼 때 자신은 의롭고 세리는 멸시하는 모습이다. 육신 안에서 사는 죄의 종의 모습이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나타나는 죄인이 아닌 것에 감사하고 부정한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한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다. 죄 안에서 살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 어둠에 있는 자다. 비록 세리로 부정하게 사는 자

이지만 자신을 깨달은 사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거룩함의 함께 하는 의인으로 삼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거룩함을 주신다.

# 기독교 교육 (52)

## 가족사역

김중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전통적으로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져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 가족의 형태가 눈에 띄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독립과 자유를 중시하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자녀 양육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둘째, 맞벌이로 인해 부부의 평등과 집안일의 분할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같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족 간의 소통방법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로 많은 가족이 노부모를 돌보며 세대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활방식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의 구조가 전형적인 핵가족에서 독신가족, 맞벌이 가족, 대가족, 결손 또는 한부모 가족, 재혼 또는 혼합 가족, 무자녀 가족,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는 조손가족, 입양가족, 동거가족, 군인가족, 다문화가족, 다인종가족,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과 조함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법도 이와 같은 변화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동성부부 가족과 폴리암리(다자연애) 가족까지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미국, 타이완, 그리고 그리스를 포함하여 36개의 나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자연애는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캘리포니아의 오크랜드를 포함하여 다자연애 그룹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단계를 거치며 발달합니다. 먼저 한 사람의 독립으로부터 가족이 시작됩니다. 개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교육과 직업 활동을 추구하며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결혼의 단계로서, 독립한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 삶을 나누고 문제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연합합니다. 그리고 자녀 생산과 양육의 단계로 들어가 어린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보고 기릅니다.

다음은 자녀가 유치원 연령에 이르는 단계계로서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형성하도록 지도합니다. 다음은 자녀가 학생이 되는 단계입니다. 자녀의 학교교육과 과외활동을 동참합니다. 자녀가 가정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족 간의 역할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음은 자녀의 청소년 단계로 사춘기의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따라 가족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다음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단계입니다. 자녀가 고등교육과 취직 그리고 결혼 등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부모는 빈둥지 생활을 준비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빈둥지 단계로서 자녀가 떠나

고 부모는 자신들의 삶을 평가하고 조정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개인적인 관심사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퇴와 노후의 단계로서 건강과 재정상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음은 조부모 단계로 손주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화현상과 배우자와의 사별 그리고 유산처리에 대처합니다.

모든 형태의 가족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교회는 현대 가족들의 특성과 가족의 발달단계를 이해하고, 가족과 구성원들의 필요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다양한 모양의 가족사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정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영적인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그들을 염두에 둔 주일학교, 성경공부, 또는 세미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을 윤곽하게 하고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세미나, 워크샵, 수련회 등을 통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친교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들이 연합하여 공동체 의식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참여자들 사이에 멘토링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이 신앙과 성경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녀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가족사역팀을 만들어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난 가족들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 있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가족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소식지나 소셜미디어 또는 교회광고 등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고 열어 두어 가족사역에 관련된 행사나 자원을 수시로 소개해주어야 합니다.

가족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기독교적인 가족의 모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언약결혼(창 2:24), 2. 남편과 아내의 역할(엢 5:11-33), 3. 부모의 책임(잠 22:6), 4. 자녀의 순종과 공경(출 20:12), 5. 영적인 공급과 성장(신 6:6-7), 6. 청지기도와 공급(딤후 5:8). 교회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이해하고 포용함과 동시에 성경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88.중년부부의 위기와 대처법

결혼 9년 차인 어느 중년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교적 성실한 편이었으나, 술자리가 잦았고 자녀교육 등 집안일에 소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인은 늘 불만이 많았으나, 자녀가 잘되는 것에 희망을 두고 감정을 누르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의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헛 살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 대해 더 이상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 이혼율이 높은 중년의 시기

한국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OECD국가 중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연령은 남자가 평균 43세, 여자가 40세로 10년 전에 비해 연령이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중장년층의 이혼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의 사유는 과거와 변함없이 성격 차가 50%를 차지했습니다. 중년의 시기에 이혼율이 높은 것은 중년기가 가진 특징적인 면 때문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결혼한지 10년을 전후하여 남편과 아내는 심리적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중년기입니다.

영화 '7년만의 외출(The

Seven Year Itch)'은 이러한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인 영화로 유명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리처드는 부인과 아들을 피서지에 보낸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마침 같은 아파트에 금발의 미녀가 이사를 오게 되고, 주인공은 외도에 대한 욕망과 이로 인한 죄책감을 겪게 됩니다. 영화의 결말은 결국 주인공이 갈등을 이겨내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실제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 영화를 소재로 5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7년 후 부부관계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부부들은 결혼 초에 비해 만족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그 시기가 바로 중년의 위기와 관계가 깊습니다.

2. 변화의 시기에 찾아오는 심리적 위기

중년의 시기는 삶을 반추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위기는 종종 중년기를 마지막 변화의 시점으로 생각하는 절박감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남성(혹은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이 시기에 직업과 미래에 대한 마지막 변화를 꿈꿉니다. 여성의 경우 육아를

이제 막 마치고 학령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찾게 됩니다. 항상 심리적 위기는 변화의 시기에 찾아옵니다. 이제 부부는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전보다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중년의 위기 대처법

(1)상대방을 부부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한다.

간단하지만 잊기 쉬운 부분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부부 일심동체보다는 이심이체의 입장에서 서로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2)정서적으로 상호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서적 공감이 부족할 때 문제가 누적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못할 때 과격으로 치닫합니다. 할 수 있다면 먼 곳이 아니라라도 일상을 털어버릴 수 있는 시원한 곳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평생 인생의 동반자가 배우자임을 잊어선 안 된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보상받기 위해 자녀에 대한 과도한 희망을 갖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독립할 시점이 되면(사춘기, 결혼, 유학 등) 갑작스런 우울증이나 본격적인 부부 갈등을 경험합니다. 실제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에서도 중년기 결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자녀가 그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부부 성생활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중요한 척도임을 기억한다.

남편과 아내는 상호 존중받는 성생활을 통해 자존감과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국인은 부부간 성에 대한 상호의사소통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성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종종 배우자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심한 경우 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부부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다른 표현입니다. 위기를 넘어 이것을 기회로 잘 활용하여 희망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

▲ 종족명 뿌리끄 종족

▲ 인구 약 37,700명

▲ 종교 이슬람교 97%, 불교의 2.91%, 복음화율 0.09%

▲ 복음매체 신약 완역, 구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있음

▲ 종족 프로필 주로 인도 최북단에 산다. 뿌리끄는 티벳에서 왔다는 의미이다. 티벳불교에서 이슬람교(시아파)로 개종하였다. 이슬람 종교의식에 사용되던 발터어가 라다크 티벳어와 혼합되어 뿌리끄어가 형성되었다. 1900년대 초부터 1956년까지 중앙아시아선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역한 유일한 단체였다.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복음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 기도제목

- 1. 인도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뿌리끄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2. 성령께서 기독교에 거부감이 강한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3.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이 번역된 신약 성경을 통해 믿음이 자라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썩은 사과 이야기

새벽에 교회에 오면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씻습니다. 이른 아침에 따뜻한 커피와 함께 먹는 사과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

한 새벽, 커피 향과 더불어 사각거리는 사과 씹는 소리에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 영혼에 날개를 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날도 습관대

로 커피를 내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무심코 사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씻으려고 보니 반이 썩었습니다. 놀린채로 문드러져 썩고 있었습니다. 버리기가 아까워 칼로 반을 도려내고 나머지를 먹었습니다.

썩은 부분을 쓰레기통에 던질 때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발견했다면 절반이나 썩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썩기 전에 반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자주 썩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깝다는 생각, 관리를 잘못했다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산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상한 것을 샀다는 의구심도 났습니다.

썩은 사과가 온종일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가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

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아가서 2:3) 솔람미 여인의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임은 거친 들판의 나무들과 달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그늘에 앉아 달콤한 사랑의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이 은유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와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사과나무 열매는 썩지만, 예수 사과나무의 열매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제 새벽에 사과를 먹을 때마다, 달콤한 예수님의 사랑을 먹기를 원합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야 8:5) bible66@gmail.com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은혜의 빛 장로교회 담임목회자 청빙

북가주의 Martinez 시에 위치한 은혜의 빛 장로교회 (KPCA 교단)에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신실하신 목회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담임목사 자격

- 학력: 장로회 정규 신학대학원 (M, DIV) 또는 총회(KPCA)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경력: 목사 안수 후 부목사, 담임목사, 선교사 경력 등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되신 분
• 이중 언어(한국어/영어)로 의사소통과 설교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o 개인의 연락처와 가족관계를 포함해 주세요.
o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까지 이력을 상세히 알려 주세요.
o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 또는 기타 전문 분야에 관한 재능이나 기술 등을 기록해 주세요.
o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 자기 소개서
o 신앙고백을 알려주세요.
o 자신의 목회관, 예배관, 교회관에 대하여 적어주세요.
o 신앙적 성장 과정을 알려주세요.
o 자신의 성품의 장점과 단점을 기록해 주세요.
o 사모에 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증명서
o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증명 o 목사 안수 증명
• 최근 설교 동영상 2 편 이상
• 추천인 연락처
o 목회자 1 인 o 평신도 2 인 (장로, 집사 및 권사 포함)

서류 제출처

- 지원 마감: 2024년 8월 31일까지
LGKPCpastorsearch@gmail.com
제출된 서류 file 은 청빙 종료와 함께 파기됩니다.
서류심사가 통과된 분은 추가 서류와 면담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혜의빛장로교회

은혜의 빛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68 Morello Ave. Martinez, CA 94553
www.lightofgrace.org



2024년 세계선교교회 장학생 선발

세계선교교회(김창섭 담임목사)는 매년 가을 바자회로 기금을 모금하여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자격

남가주 거주자 및 남가주 소재의 정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또는 입학 예정인 학생

모집분야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성적 우수자, 신학생, 목회자(전도사) 자녀 및 선교사 자녀

신청방법

본 교회 홈페이지(wmcla.com)의 교회소식란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2024년 7월 28일

장학금 수여식

2024년 8월 11일 오전 11시, 세계선교교회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수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www.wmcla.com



세계선교교회 WORLD MISSION CHURCH OF LOS ANGELES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저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다 음의 내용의 카톡을 받았습 니다. "목사님, 6월 30일 주일에 은퇴예배에 오셔서 간단하게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간단하게 전 해 달라는 것일까? 권면인가, 축 사인가, 아니면 설교인가? 궁 금해서 카톡으로 되물었습니

다. 그러자 곧바로 대답이 왔 습니다. "목사님, 설교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은퇴예 배에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하나 걱정하며 말씀을 준비하기 위 해 기도하는 중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 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가 생명의 관을 내게주리라" 는 요한계시록 2:10절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사역 을 내려놓을 때 제 마음에 다 가왔던 강한 질문이 있었던 것 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하 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은퇴가 과연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었습니다.

은퇴식에 와서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제게 다가온 요한계시록 2:10절 말씀 앞에서 이 질문 이 제게 다시 다가온 것입니 다. 이유는 제 작은 생각으로 는 성경 어디에도 은퇴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실 때, 각자에게 나름의 사 명을 다 주셨습니다. 아니 사

명을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나름 모두에 게 사역을 분담하셨습니다. 그 리고 그렇게 분담해주신 사역 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와 사정으로 은퇴라는 이름으 로 사역을 내려놓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올 때 하나님 이 맡기신 사역을 내려놓는 것 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구지 은퇴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계속 감 당해야 되는 것이란 생각입니 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인 생이라는 여정에 서머나교회 에 주신 말씀처럼 환난도, 궁핍함도 있고, 고난과 시련도 있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 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

최선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는 생각입니다.

인생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다 가오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 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 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 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 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 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 썬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



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 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 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에게도니라(딤후 4:2-8)."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구토증에 관해서

구토증세는 흔히 위장관의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때 우 불쾌한 증상이다. 때로는 구토 후에 증상이 완화될 수 도 있지만 구토 후에도 불쾌

함이 계속될 수도 있다. 또 음 식을 섭취한 후에 구토 증상 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20세 후반의 여성 김씨는 새벽에 속이 심하게 쓰러면서

속이 메스꺼런 증상이 3주 동 안 계속되었다. 평소엔 위가 약해서 자주 속쓰린 증상을 많이 경험했는데 최근에 스트 레스가 심한 직장으로 옮기면 서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을 느꼈다.

60대 초반의 남성 박모씨는 새벽에 전화를 받기 위해서 일어났다가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증상이 나타났다. 어지러움과 구토증상이 너무 심해서 자리에 누워있다가 2 시간이 지난 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 증례에서 김씨의 증상은 흔히 위궤양이나 위염과 같이 흔한 위장 질환으로 인한 구 토 증상이지만 박모씨의 증상 은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인한

구토증상이다. 이처럼 같은 구토증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전혀 다를 수 있고 그 원인을 구별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위 운동은 중추신경계와 매 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는데 위 운동은 다음의 3단 계에서 조절이 일어난다. 먼저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 과 같은 중추신경계와 장뇌경 계, 평활근육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장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때 어느 작용에 이상이 나 타나게 되면 메스꺼리는 증상 이 나타나고 심하면 구토를 하게된다.

다음과 같이 만성 구토 증 상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 많

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구토와 함께 복통이 동반되면 담석증이나 위궤양 등의 상부위장관계의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장염에서 도 흔히 복통과 함께 구토증 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급성 복통인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 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 다.

둘째, 구토증상과 함께 복 부가 불러오면 장폐색을 의심 해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장관 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성이 많다.

셋째, 아침 일찍 구토 증 상은 임신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가임기 여성은 임신검사 를 하도록 한다.

넷째, 구토때 대변냄새가 나는 경우는 소장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다.

다섯째, 구토와 함께 심한 어지럼증이 동반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내이질환때 발생한다.

여섯째, 급성 뇌졸중이나 뇌종양이 커서 뇌압을 상승시 킬 때 구토를 할 수도 있는 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다 든지 시력에 이상이 있는 등 다른 신경계통에 이상소견과 함께 구토가 있을 때는 이를 의심한다. 이는 응급이므로 급히 의료기관을 찾도록 한 다.

▲문의:213-383-9388

미국 복음주의자...

(2면에서 계속)

놀은 시에 대한 킬비의 접근 방식을 이렇게 말한다.

킬비는 문학을 사랑했고 상상 력을 믿었다. 그는 자유롭게 위즈 워스의 시를 인용할 정도였다. 무 엇보다도 그는 시가 설교의 마지 막 요점을 강조하기 위한 부가적 인 장치에 불과하다는, 기존 휘튼 근본주의자들의 생각을 반박하 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킬 비는 시가 자신의 삶 자체였다고 선언했다. 단지 삶이 아니라 그리 스도인의 삶으로서도 그랬다는

것이다. 나 역시 개인적인 삶의 굴곡을 겪는 중에 그의 말이 무 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시를 좋아한다는 건 잘 알 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전까지 시와 삶을 연관시킨 적은 없었다. 놀의 경우에 역사에 관한 작품 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또한 경력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잡지에 약 서론 편을 시를 소리 소문 없이 출판한 시인이기도 하다. 1997년 Baker가 출판한 Seasons of Grace라는 시집도 그중 하나다.

킬비의 수업을 듣는 시기에 존 파이퍼는 다음과 같이 노트에 썼다.

"킬비는 아마도 내가 만난 최 고의 선생일 것이다. 킬비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 고 있다."

파이퍼는 킬비에게서 받은 영 향을 다음과 같이 썼다.

평생 봤지만 한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되었 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 이다. 킬비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가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거의 아는 게 없다. 킬비가 내게 영향을 끼친 건 그가 세상

을 보는 방식, 그리고 세상에 대 해 말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사물 의 경이로움을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실로 신학교 에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야 할 영혼을 준비하는 데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일 이었다." 파이퍼 자신도 여러 권 의 시집을 썼는데, 거기 실린 시 의 일부는 그가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목회 하는 동안 대립될 기간에 매년 진행한 성경적 시 쓰기에서 발췌 한 것이다.

은퇴 4년 전, 그리고 죽기 10년 전인 1976년, 킬비는 미니애폴리

스에 있는 제일 연합 교회에서 "정신 건강을 위한 열 가지 결심"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그 자리에는 당시 세인트 폴에 있는 베넬 대학의 성서 연구 교수였던 존 파이퍼가 참석했다. 그 강연의 개요는 킬비가 학생들에게 모델 로 삼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세계 가 주는 경이로움, 삶을 긍정하도 록 하는 놀라움이 어떤 것인지 조금 맛보도록 한다.

강연은 이런 식으로 끝을 맺는다.

설령 내가 틀렸다고 판명되더라도, 나는 다음 가정에 생명을 걸겠다. 이 세상은 명정하지 않

다. 세상은 결코 부채환 집주인이 운영하는 곳도 아니다. 반대로 바 로 오늘, 이 우주라는 캔버스에는 또 하나의 붓질이 더해지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는 건축가가 오늘 새롭게 새긴 그 붓질 을 기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킬비는 단지 미국 복음주의 청 중에게 루이스와 톨킨, 잉클링즈 가족의 소개자이자 해석자라는 유산만을 남긴 게 아니다. 그는 복음주의 세계에 중요한 공헌을 할 두 명의 젊은 대학생에게도 자신의 발자취를 남겼다.

최창섭 목사 성역(담임목회) 45년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

최창섭 목사님께서 1979년부터 45년 동안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담임목사 사역을 하면서 오직 한 길로 달려오셨습니다. 2007년부터는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시면서 교회의 성장과 평안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목회에 헌신하셨습니다. 에벤에셀선교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목사님, 주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을 본 교회 원로목사로 추대합니다.

- 에벤에셀선교교회 성도 일동 -

일시: 2024년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에벤에셀선교교회
220-16 Union tpke. Oakland Gardens, NY 11364
전화: 718-570-5858
(회환은 사절합니다. 헌금은 다음세대 사역을 위해 기부됩니다)

최창섭 목사 약력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 30대 총회장 역임(2011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5대 회장 역임(2008년)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부회장 역임(2005년)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 대표 역임(2013년)

